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Clear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입양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한인사회

한국사회는 미혼모 차별, 한인사회는 입양인 무관심
입양아 모임 캐드토크 하버드 미혼모 후원 모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입양인들에게 한인사회는 여전히 멀었다. 입양인 모임 캐드토크(KADtalk)가 하버드에서 한국 미혼모의 실태를 알고 후원하는 행사에 한인들을 찾아보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입양인들이 한인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딱 이 정도다.

4일 저녁 하버드 윌리엄제임스홀에서 열린 이 만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와 미혼모 가족모임 관계자들과의 영상대화를 통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는 60명. 입양인들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한인들은 5-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한국의 미혼모들의 자립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이날 행사와 제너러시티닷컴(generosity.com)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 “미혼모 차별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양산하고 있는 입양아를 더 이상 해외로 보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말라” 며 한국 미혼모 문제에 입양인들이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당일 행사장에서는 참석자들에게 20-30불을 받았으며 사일런트 옥션을 통해 기금을 모았다. 행사장 모금은 집계되지 않았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도 30명이 참여해 \$1765을 모았다. 목표치 7천불의 24%에 불과하다.

한인사회가 입양아들에게 무관심하다면 한국사회는 미혼모들을 차별한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압박은 없지만 미혼모인 경우 직장에서도 퇴출되며 심지어는 다니던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한다. 친구와 가족과도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혼모가 임신하면 100명중 96명이 낙태를 선택한다. 출산한 아이 4명중의 3명은 해외입양아가 된다. 이날 행사에서 미혼모가족협회(KUMFA)와 새년 하이트씨와 화상대화 사회를 맡은 장윤식 하버드 사회학

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이혼모들에게 가족부양금을 지급하는 남자는 전체 6.7%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법원에서 부양금 등을 판결해도 집행할 방법이 뚜렷이 없다.

사회적 차별과 부양금조차 받지 못한 미혼모들이 선택할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입양이다. 미혼모가족협회등과 같은 협회의 도움을 받은 경우 이들은 홀로 아이를 기르는 길을 선택한다. 다큐 영화 <달콤한 농담>은 이들의 삶을 유머로 표현했다.

이날 행사 화상대화 >>2면으로 계속



이번 행사를 주관한 캐드토크(KADtalk)의 회장 새봄 씨

주 경찰 이민 단속 가능해졌다

베이커 주정부 패트릭 정책 바뀌 이민 단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경찰은 형사범죄를 범한 혐의자를 체포한 경우 이민신분을 조회하고 구금할 수 있게 됐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연방 이민단속국의 테

러리즘 예방과 갇단 및 각종 범죄단속을 돕기 위해 기존 패트릭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과 달리 주 경찰이 이민자들의 신분을 필요시 언제든지 이민단속국에 확인하도록 결정했다.

패트릭 행정부는 그동안 주경찰의 임무에는 이민단속이 포함되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성수기 출발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098

싱가폴항공 (샌프란시스코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

*\$1098.00는 싱가포르항공 요금으로 출발 21일전에 예약 및 발견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권유가맹주
최상의 부동 산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한국사회내 미혼모, 입양인에 대한 차별을 깨기 위한 중요한 시도

▶▶1면에 이어서

에 참여했던 새년 하이트씨는 25살 때 한국을 방문, 온갖 노력과 굴곡끝에 친어머니를 만났다. 이는 운이 좋은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캐드토크(KADtalk)의 회장 새봄 씨는 15년동안 생모를 찾았지만 아직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해외 입양아 20만명 중 친모를 찾는 경우는 2%남짓. 한국사회의 차별로 인해 90년대 이전 기록이 대부분 거짓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한인 입양인들이 하버드에서 이런 모금활동을 시도한 것은 한국사회내 미혼모, 입양인에 대한 차별을 깨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 한인들의 무관심도 함께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행사를 후원한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입양인 삶의 상처는 정말 크다. 스스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한인사회도 따뜻한 관심으로 이들을 조용히 후원할 때다” 고 밝혔다.

제너러시티닷컴 크라우드 펀딩 주소
<https://www.generosity.com/community-fundraising/kumfa-fundraiser-boston--2/x/1434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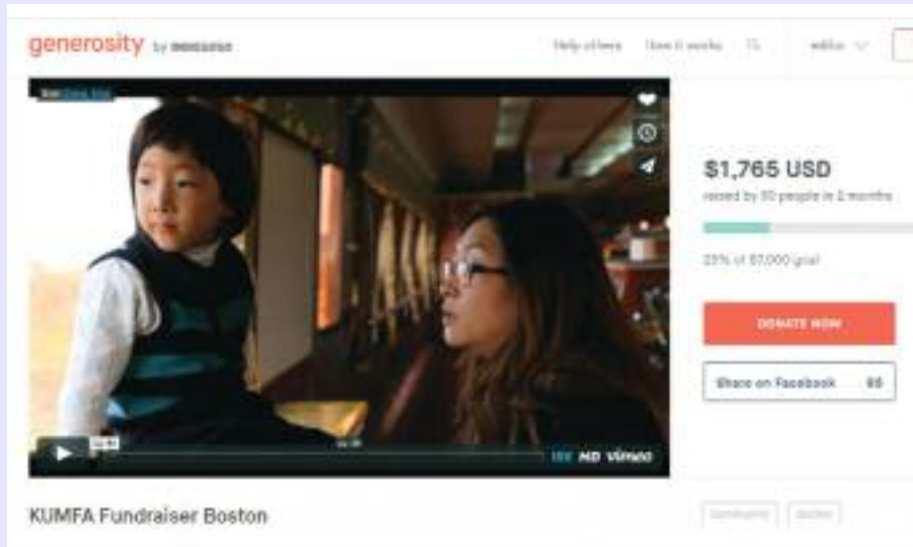
hsb@bostonkorea.com



화상대화 사회를 맡은 장윤식 하버드 사회학과 교수



이날 행사에서 미혼모가족협회(KUMFA)와 새년 하이트(우)씨와 화상통화를 진행하는 모습



입양인 모임 캐드토크(KADtalk)는 한국의 미혼모들의 자립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이날 행사와 제너러시티닷컴(generosity.com)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금을 모금했다



참석자는 60명. 입양인들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한인들은 5-6명에 불과했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영화 <곡성> 보스턴 연장 상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주말 개봉한 <곡성 The Wailing>이 뉴욕 타임즈 미국 언론의 호평과 한인들의 관심에 힘입어 보스턴 및 미국내 31개 상영관에서 연장 상영을 결정했다.

영화 곡성은 미국내 32개 상영관에만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박스 오피스 17위, 상영관당 티켓 판매량 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북미 흥행 질주를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6월 2일 리뷰에서 “영화 ‘곡성’은 관객을 시종 공포에 떨게 하고 심장을 얼어붙게 할 영화”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보통 호러영화가 2시간 이상 상영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 영화는 (장시간에도) 지루하지 않았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천천히 타오르는 초자연적인 환각 세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나홍진 감독의 연출력을 칭찬하면서 “호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극찬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도 “영화 ‘곡성’은 호러 장르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끌어왔다”면서 “하지만 (관객들이) 출구 찾기를 하기에 대단히 어렵고 난해한 영화”라고 했다.

특히 NPR은 영화가 전통적 무당, 천주교 부제, 일본 불교의 스님이자 악령에 휩싸인 일본인 외지인 등을 등장시켜 악마주의를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앞서 ‘곡성’은 6월 27일 미국 영화전문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지수 100%를 기록했으며, 인디와이어는 “이 영화는 미친듯한 오컬트 난센스의 156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배우 곽도원이 첫 주연을 맡고 황정민·천우희 등 연기와 배우가 출연한 ‘곡성’은 외지인이 나타난 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 그리고 그 속에 이상하게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hsb@bostonkorea.com

새로운 I-20 양식, 7월 1일 입국 때부터 필수

6월 30일까지 기존 양식 사용 가능
OPT 신청위해 기존 양식도 보관 권장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7월 1일부터는 모든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난해 6월부터 새롭게 발급되었던 I-2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방 국토 안보부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F-1, F-2 학생들에게 새로운 I-20를 발급해 왔으며 1년간의 유효 기간을 두고 기존 양식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토 안보부는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새롭게 바뀐 I-20 양식을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 미 입국심사,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 운전면허증 신청 등에 반드시 바뀐 새 I-2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각 학교 외국인학생담당은 비록 양식은 새로운 양식으로 바뀔지라도 추후 OPT 신청 등을 고려해 기존의 I-20도 동시에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원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현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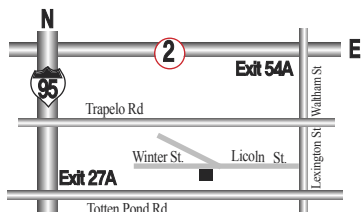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 실력 보여준 평통 통일안보비전 발표 대회

평화 통일 프리젠테이션에 한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깜짝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푸 집한 상금으로 대회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통일 안보비전 발표 대회 예선전은 현대 무용을 선보인 프리버드팀의 최우수상 수상으로 막을 내렸다.

4일 MIT에서 열린 통일안보비전대회 보스톤 지역예선에는 10개팀이 참가해 통일관련 프리젠테이션, 안무, 양상블, 연주와 뮤지컬, 노래 그리고 샌드미술까지 다양한 형태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프리버드 팀은 이보나, 김효경 양이 <달콤한 나의집>이란 제목의 현대무용 안무로 평화와 전쟁 그리고 통일의 과정을 열정적인 안무로 표현해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우수상은 <통일 한마음 한겨레>팀과 <하나로>팀이 차지했으며 <원 코리아>, <더사운드브윈드> 2팀이 장려상을 받았다.

통일한마음한겨레팀과 하나로팀은 모두 성요한 교회 청년부내에서 구성된 팀이며 연극과 뮤지컬 공연으로 주제를 표현해 후한 점수를 받았다. 원코리아 팀은 초등학교생인 최재민, 채재윤 두 학생이 훌륭한 하모니를 이룬 노래로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더사운드브윈드팀도 한 가

족이 참여해 한국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샌드애니메이션으로 감성을 자극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인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것이다. 5개 팀의 멤버내 미국인이 최소한 1명 이상 참여했으며 <인터내셔널 클럽>팀은 3명의 팀원 모두가 미국 대학생이었다. 비록 인터내셔널 클럽은 구글번역을 통한 번역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한국번역문을 노출하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한국의 평화통일에 대해 고찰했다.

노르웨이 출신의 마틴양과 김정훈양이 팀을 이룬 <팀 자딘>은 노르웨이와 한국의 관계를 조명하고 통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인 참여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한국에서 발표시 한국말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아 대부분 수상권에서 밀려났다.

서형석 국방교육정책관은 “보스톤을 대표할 수 있고 서울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외국인들도 참가했는데 한국말로 하는 발표여야 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심사평을 했다. 서 정책관은 또 “평화통일이란 목적성과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에 얼마나 잘 부합했는지 보았으며 주제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프리버드 팀은 이보나, 김효경 양이 <달콤한 나의집>이란 제목의 현대무용 안무로 평화와 전쟁 그리고 통일의 과정을 열정적인 안무로 표현했다

서 벗어나, 예를 들면 탈북문제, 평화적 남북 교류 등의 주제는 점수를 감했다”고 밝혔다.

서 정책관은 “보스톤에서 다양성과 예술적 그리고 학구적 우수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올해 한국에 못가는 분들은 내년에도 기회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다”며 내년에도 도전할 것을 권장했다.

안보비전대회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한선우 평통회장은 “그동안 보스톤 지역 언론에 지속적인 대회 광고를 통해 평화통일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말하고 “짧은 홍보 기간이었지만 무려 10

개팀이나 참가해 주셨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참가한 젊은이들이 평화통일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회를 관람한 김인수 전 한인회장은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공연에 흠뻑 매료됐다”고 밝혔으며 벤자민 김 평통위원은 “모두가 훌륭했고 최우수팀은 시선을 땔 수 없을 정도로 박진감 넘치고 열정적인 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약 100여명이 참여했다.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보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수용지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잡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용량정 오일정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주문후 다량할 권하여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토도 배송 해드립니다.



안보비전발표회 예선전에 현대 무용을 선보인 프리버드팀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영석 국방교육 정책관, 김효경, 한기영, 김효인, 이보나(좌부터)



이광석 영사와 우수상을 수상한 <통일 한마음 한겨레>팀 이규진, 김지혜, 고유한, 조한아



우수상 <하나로>팀 정원미, 김도연, 김유나, 김예나, Tommy Holladay



원코리아 팀은 초등학생인 최재민, 최재윤 두 학생이 훌륭한 하모니를 이룬 노래로 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5개 팀의 멤버에 미국인이 최소한 1명 이상 참여했다. 팀 자진의 마틴양

평통 안보비전 대회 수상자 명단

상	팀 이름	팀 멤버	제목	형식
최우수상 (한국항공 항공공과 대학 경매)	Free Bird	김효연, 김효경, 이보나, 한기영	Home, sweet home	Multimedia Dance Performance
우수상 (\$500)	통일 "한마음 한겨레"	이규진, 조한아, 고유한, 김지혜	강기려를영문역교	영국 노래
우수상 (\$500)	하나로	김유나, 김예나, 김도연, 정원미, Tommy Holladay	미이(美愛) 메기/루턴으로 고통받는 슬픈 연애의 대문	뮤지컬
장려상 (\$300)	GroupRean	남영우, 김보경, 송희원	"나도, 대한민국 자녀입니다"	Presentation
장려상 (\$300)	One Korea	최재경, 최재민, 최재윤	누가? 왜?	노래 Performance
장려상 (\$300)	The sound of Wind	김희진, 김경실, 이유현, 이혜일, 이유찬	Can you feel the sound of wind?	Sand animation Performance
장가상 (\$200)	Gabriel's Oboe	이성욱, 김세영, Mark Robertson, Joanna Hyun Lee	Dream/Here we are now	노래, Presentation
장가상 (\$200)	International Club	Nichetou Seck, James Driscoll, Chentel Prestara	Korean Unification	Presentation Discussion
장가상 (\$200)	Team Jardine	김정준, Martine Bjoernstad	Normalization of the Abnormality is Peaceful Unification	Presentation
심가상 (\$200)	We go Together	주위상, 문병근, 권민석	통일외교의 국제화 필요성 및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	Presentation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한인회의 차세대 지미리앙이 다른 회원들과 같이 퍼레이드에 참석한 사진으로 2013년 Providence Journal 1면에 실린 사진



가장 오래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자원봉사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미국인들과 한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참여하는 브리스톨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행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로드아일랜드 브리스톨 (Bristol) 에서 열리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1785년에 시작하여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행사다. 특히 이 퍼레이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며 TV로 생방송된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매년 한국

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이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며, 한국과 미국의 유대 관계를 다져왔다. 그러나 참전용사는 상당수가 별세했고 얼마 남지 않는 이들도 트레일에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상황이 됐다.

조봉섭 한인회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가 어느덧 66년전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전 용사들의 연세가 84세가 넘어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이 역사적인 퍼레이드를 같이 할수있는 기회는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차세대를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준비기로 했다. 한복을 입고 미국 대형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는 퍼레이드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조봉섭 회장은 “특히 고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참석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끝난 후 한인회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식사를 대접한다. 연락은 한인회 한인회 운영진 (401-632-7401)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극동방송 창원 어린이 합창단이 6월 25일 오후 4시 보스톤 다운타운 트레몬트 스트리트소재 트레몬트 템플 뱍티스트 교회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 측은 가곡, 성가곡, 클래식 등 한국어와 영어로 아름다운 선율을 뽐낼 계획이다. 아울러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무용도 선보인다. 설교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나설 예정이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번 공연은 한국 극동방송 어린이 연합합창단이 6/24 금요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최되는 '나라사랑 평화음악회'에 참석차 방문해 이뤄지게 됐다.

극동방송 창원 어린이 합창단은 25일과 26일 양일간 보스톤지역에 머물면서 헤버힐 소재 웨스트콘그리게이션에서 처치와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참전용사회 앤도버 가두 행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6.25 참전용사회를 주축으로 한 한인들 20여명은 5월 29일 앤도버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가두행진에서는 우천으로 인해 예정대로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지는 못했다. 강경신 회장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은 우천으로 타운 메모리얼 오디토리움으로 옮겨 행사를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날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은 우천으로 예정대로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지는 못했으며 타운 메모리얼 오디토리움으로 옮겨 행사를 가졌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아시아아메리칸 위원회 10주년 만찬회

미셸 우 의장, 엄성준 영사등 아시아계 인사 참여
미국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 찾아야 강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미국사회에서 아시아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노력해 온 매사추세츠 아시아 아메리칸 위원회(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이하 AAC)가 출범1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가졌다.

3일 보스톤 대학의 GSU 멧카프 홀(Metcalf Hall)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미셸 우(현 보스톤 시의회 의장), 택키 찬(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 폴 와타나베(UMass교수), 아크힐 니갑(매스첼린지 창립자) 등 매사추세츠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분야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인사 300명이 자리하였으며,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도

참석하여 AAC의 10주년을 축하했다.

축하연설에서 엘리사 최 의장은 4월 퀸시(Quincy)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인 시민 워크숍을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남은 반년은 더 많은 아시아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자 바쁘게 움직일 것” 이라고 말했다. AAC는 하반기에 우스터(Worcester), 로웰에서 아시아인 시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청년리더 심포지움, 아시아인 아메리칸 민권 컨퍼런스등을 개최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리사 원 전 피치버그 시장은 아시아인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룹” 이라 말하며 “이에 맞

춰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에도 관심을 갖자” 고 촉구했다. 함께 참여한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은 “아시아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미국사회에서 떨어진 남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때”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서는 시드니 리앙, 맵 포 헬스(Map For Health), 존 행콕 파이낸셜 서비스, 셸리나 초우 씨가 아시아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한 성과로 공로상을 받았다.

AAC는 2006년 마이클 모리시 주 상원의원(민주)과 25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아시아인 위원회 설립 법안의 통과로 이듬해 1월 27일 출범하였다. 이후 AAC는 각종 주정부 정책과 혜택 등에서 외면되던 아시아계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한국계인 엘리사 최 박사가 역임하고 있으며 15명의 위원중에서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이경해 (Kay Lee Dong)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위원회 임원진들. 한국계로는 엘리사 최 회장(하단 좌측 네번째)과 이경해 위원(상단 좌측 다섯번째)이 참여했다

김현수, 보스톤에 온다!

최근 7경기 타율 .393, 선발 출장 가능성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볼티모어 오리올즈의 김현수가 펜웨이 구장에서 열린 레드삭스전을 앞두고 선발출장 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김현수가 소속된 오리올스는 다음주 14, 15, 16일 3연전을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파크에서 갖는다.

김현수는 스프링캠프의 부진으로 한 때 마이너리그행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제한된 기회속에서 타율 4할의 선전으로 5월 25일 휴스턴 전부터 선발로 기용되고있다. 포지션 경쟁자인 조이 리카드가 최근 7경기에서 .111의 타격부진에 허덕여 볼티모어의 여론이 김현수를 지지한 것도 김현수의 선발기회 확보에 주요했다.

현재 김현수의 기록은 28타수 11



9일 현재 타율 .372로 주전경쟁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김현수가 레드삭스와의 3연전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제공 : mb.com)

안타 4타점 1홈런 타율 .393을 기록 중이다. 한편 레드삭스는 14일 경기에 선착순 15,000명의 관객에게 레드삭스의 주장 제이슨 배리텍의 보블헤드 인형을 제공할 예정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 산악회 2016 제 12차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회장 한정원)가 오는 6월 18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와싱턴(Mt. Washington /6288 ft)으로 12차 정기산행을 간다.

이번 산행은 Ammonoosuc ravine Trail로 올라가서 Jewell Trail로 내려오는데 왕복 산행 거리는 9.2 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7시간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방풍의,우의, 장갑, 스틱, 식수, 간편 음식이며 등산화 착용은 필수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전 5시 5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6시 4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6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다.

기타 문의사항은 (617) 780-6521로 할 수 있으며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산악회 카페 웹사이트 (cafe.daum.net/bostonmountaineer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행일: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집결지: 울스턴 공영주차장 오전 5시 50분

Park&Ride, Exit2 of RT93 오전 6시 30분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 랜드마크 오케스트라 무료 여름콘서트

장소: 찰스 강변의 해치 쉼,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기간: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온 시즌을 통틀어 가장 “예술적이고, 상상력으로 가득하고, 영감 있는” 연주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보스톤 랜드마크 오케스트라(Boston Landmarks Orchestra)의 2016년 여름콘서트 스케줄을 소개한다.

음악 감독 크리스토퍼 윌킨스(Christopher Wilkins)는 이번 시즌 스케줄을 발표하며 “어린아이, 가족, 그리고 음악회를 처음 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며 “올해는 가장 상호교류가 많은 해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역 문화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라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이사벨라 스투어드 가드너 뮤지엄(Isabella Stewart Gardner Museum), 커먼웰스 셰익스피어 컴퍼니(Commonwealth Shakespeare Company), 백베이 코랄(Back Bay Chorale), 울러! 페스티벌(HONK! Festival) 등이 있다.

랜드마크 오케스트라는 또한 더 작은 규모의 콘서트를 몇몇 보스톤 지역에서 진행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landmarksorchestra.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7월 13일 오후 7시 ‘랩소디 인 그린(Rhapsody in Green)’

야생과 자연에 대한 음악을 선보인다. 중국 출신 작곡가 겸 지휘자 탄둔(Tan Dun)의 ‘바람과 새들의 비밀(Secret of Wind and Birds)’ 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색과 소리를 연주하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핸드폰으로 튜닝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탈리아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Ottorino Respighi)의 ‘로마의 소나무(The Pines of Rome)’ 는 1924년 처음으로 새소리를 녹음하여 콘서트 음악에 접목

시켰다. (우천 시 7월 14일 오후 7시로 연기된다. 14일에도 비가 올 경우 MIT의 Kresge Auditorium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0일 오후 7시 ‘전람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n)’

이사벨라 스투어드 가드너 뮤지엄과 스톡브릿지의 록웰 미술관(Rockwell Museum)의 주요 작품들이 오케스트라 연주 위로 펼쳐진다. 가드너 뮤지엄의 디렉터 페기 포겔만(Peggy Fogelman)이 공동 주최하는 이벤트다. 무솔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이 연주된다.

(우천 시 7월 21일 오후 7시로 연기. 21일에도 비가 올 경우 MIT의 Kresge Auditorium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7일 오후 7시 ‘베르디와 발키리(Verdi & Valkyries)’

한 시대를 품어왔던 소프라노 제인 이글린(Jane Eaglen)이 참여한다. 바그너와 푸치니, 베르디가 연주된다. 특히 베르디의 주요작품인 리베라 메 도미네(Libera me, Domine)는 뉴잉글랜드 초연이다.

(우천 시 7월 28일 오후 7시로 연기. 28일에도 비가 올 경우 MIT의 Kresge Auditorium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3일 해질 무렵 ‘필름 나이트(Film Night)’

이 날은 연주회 대신 클래식 영화 한편이 상영된다. 1949년에 발표된 뮤지컬 영화 ‘온 더 타운(On the Town)’ 은 1944년 레오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뮤지컬은



다시 팬시 프리(Fancy Free)라는 발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8월 17일 날 랜드마크 오케스트라가 이 뮤지컬 곡들을 연주한다. (우천 시 스케줄 없음)

8월 10일 오후 7시 ‘랜드마크 롤라 팔루자(Landmarks Lollapalooza)’

다양한 스타일의 오픈에어 페스티벌로 진행된다. 거슈타인,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심포니 5 악장이 연주되며, 이스트보스턴의 ZUMIX, 울러! 페스티벌(Honk! Festival)이 함께 참여한다.

(우천 시 8월 11일 오후 7시로 연기. 28일에도 비가 올 경우 실내로 장소변경하며 추후공지 예정이다.)

8월 17일 오후 7시 ‘풋루즈와 팬시프리(Footloose and Fancy Free)’

레오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팬시 프리(Fancy Free)가 안무가 요엘 캐셀(Yo-Ei Cassell)에 의해 재해석 된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르메니아 출신 댄서들의 멋진 춤사위 또한 볼 수 있는 기회다.

(우천 시 장소 추후공지)

8월 24일 오후 7시 ‘롱우드 심포니(Longwood Symphony)’

이날은 보스톤 메디컬 커뮤니티 오케스트라인 롱우드 심포니가 매년 해치 쉼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로 진행된다. 지휘: 로날드 펠드만(Ronald Feldman)

(우천 시 공지사항 없음)

8월 31일 오후 7시 ‘로저와 하트의 시라쿠스에서 온 소년들(Rodgers and Hart's the Boys from Syracuse)’

로저와 하트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오류의 코메디(The Comedy of Errors)’ 는 셰익스피어의 ‘시라쿠스에서 온 소년들(The Boys from Syracuse)’ 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커먼웰스 셰익스피어 컴퍼니와의 콜라보로 진행되는 마지막 이벤트는 로저와 하트의 뮤지컬 음악과 함께 찰스강변을 스윙 시대로 물들일 예정이다.

(우천 시 9월 1일 오후 7시로 연기. 1일에도 비가 올 경우 실내로 장소변경하며 추후공지 예정이다.)

sun@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주경찰 필요시 언제든지 이민자 신분 확인 가능

▶▶1면에 이어서

어 있지 않다며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주 경찰이 이민신원 조화를 하지 말도록 했었다. 따라서 이민단속은 물론 구금도 안됐었다.

새로운 베이커 주정부의 정책하에서도 주 경찰은 단지 이민문제만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경찰이 이민단속에 연 락해 이민신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오바 마 행정부의 우선 단속 프로그램 (Priority Enforcement Program)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우선단속프로그램은 과거 논란이 많았던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계승한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단속프로그램은 이민단속국이 주 또는 지방 경찰들에게 요청해 테러혐의 또는 간첩

혐의 또는 갱범죄, 형사범죄,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추방 가능한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연방 이민단속국은 또 경찰들에게 독립된 사건으로 세번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구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 경범죄에서 간단한 교통 위반은 제외하도록 했다.

리차드 맥키온 주 경찰서장은 지난 2일 이민단속국의 구금 요청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주지사의 이 같은 조치는 즉각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일부 이민옹호그룹은 이민단속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이번 주지사의 조치가 공중안전에 위협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반박했다. 매사추세츠 이민난민 변호연합의 이바 밀로나 대표는 이민단속국은 2015년 한해동안 23만5천명을 추방하는 등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큰 문제는 경찰 공권력의 남용이다. 이민사회에서는 여전히 공권력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단속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엘드브리지 주 상원(액트)의원은 이민신분을 검사할 목적으로 이민사회를 집중단속하는 남용 경찰을 방지할 장치가 새로운 베이커 주지사의 이민정책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숨게 되는 현상이다.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즉각 보스턴 시 경찰은 결코 주 경찰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시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결코 이민 관련 구금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을 계속하겠다. 우리는 보스턴 주민들 모두가 경찰들에게 언제든지 범죄를 고발하고 함께 협력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영화 <귀향> DVD 발매

15일 DVD 발매 예정, 한글, 영어, 일어 자막 제공
귀향을 시청하지 못한 관객들의 목마름 해소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화제의 영화 <귀향>(감독 조 정래)이 15일(한국시간 기준) DVD로 발매된다. 그동안 보스톤에서 <귀향>을 관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미주지역 10개 도시에서 개봉되었지만 보스톤은 제외되었고, 온라인 상영의 경우는 애플TV이용자만이 KORTV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었다. 이번 DVD발매로 해외에서 귀향을 볼 수 없었던 재외동포들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라딘US(한국), YesAsiaUSA(홍콩), 반디북US(한국)등의 온라인 서점 해외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국내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 교보문고, Yes24 등에서도 해외주문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알라딘 US(<http://us.aladin.co.kr>)에서 구입하는 것이 \$24.51(배송료 포함)로 가장 저렴하다. (6월 9일 기준)

올해 3월에 개봉한 영화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7만 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후원과 배우, 스태프 등 제작진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져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뉴튼 사우스 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동아리 ‘나비’가 <귀향> 상영회를 한 바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관절염
-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불면증
-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만성 탈이탈, 비만, 다이어트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예방, 심전도 검사
- 임신 전, 중, 후의 건강관리
- 각종 성인병 예방, 건강관리
- 노인 재활치료, 노인성 질환 예방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뉴잉글랜드 대학 2곳 성폭행 신고 최다 접수

브라운, 커네티컷 주립대학 공동 1위 불명예
신고되지 않던 성폭행 범죄 신고 늘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대학 2곳이 201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성폭행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대학으로 꼽혔다. 브라운 대학(Brown University)과 커네티컷 주립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에는 2014년에 1년 동안 각각 43건의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었다.

최근 연방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캠퍼스의 안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00여개 대학에서 적어도 1년에 10건 이상의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었다. 성폭행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실제 성폭행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경찰이나 학교 측에 보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브라운 대학은 대변인 성명에서 “43건의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캠퍼스 커뮤니티 내에서 학교 측이 성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발표했다.

커네티컷 주립대학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대학은 투명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범죄들이 해결되고, 우리 학생들은 적합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브라운 대학은 총 학생 수가 약 9,200명이며, 커네티컷 주립대학은 약 26,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학 내 성폭행 신고에 대한 자료는 연방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학 내 성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신 사례까지 소개되어 있다.



최고 명문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브라운 대학에서 성폭행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성폭행 신고 건수가 적은 대학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캠퍼스라는 의미는 아니다. 베일러 대학(Baylor University)은 2014년에 성폭행 신고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달 베일러 대학 이사회는 총장을 강등 시키고 풋볼 코치를 해임했다. 풋볼 선수들이 관련된 성폭행 조사에서 대학교 측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학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연방 규정이 바뀌어 올해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각 대학교에서 범죄 관련 자료를 몽땅그려 제출해 왔다.

jsi@bostonkorea.com



파네라 피넛 버터 때문에 소송 당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피넛 알레르기가 있는 6살 소녀의 부모가 파네라(Panera Brea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를 먹은 딸이 빵에 발라져 있던 피넛 버터 때문에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존 루소는 미들섹스 상급 법원에 파네라와 뉴잉글랜드 지역 파네라 영업점을 대상으로 50만 달러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루소의 아내는 지난 1월 28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네라에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인터넷 주문 당시 피넛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피넛을 넣지 말라는 문구를 두 번이나 넣었지만,

루소의 딸이 먹은 샌드위치에는 피넛 버터가 듬뿍 발라져 있었다. 이 샌드위치를 먹은 당시 5살이었던 딸은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 먹은 음식물을 다 토하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루소가 문제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파네라 내틱 지점의 매니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직원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루소는 주문에서 “피넛”이라는 단어만 읽고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전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Math**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일정

weekdays, 9am-noon "온라인 실시간"

홍익대 Jr. High 14th 279-281 - 7149(80)

홍익대 AP prep. for High School 14th 174(80) - 7701(80)

문의: 7149(80)

JEI

Learning Centers®

jellearning.com

JEI of Burlington

71 Adams St. Burlington, MA 01808

TEL: 781.348.0878

EMAIL: burlington@jel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매, 임대,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美 민주 · 공화 대선후보 확정...본선 레이스 이제부터

마지막 '슈퍼화요일' 양당 후보 모두 대의원 과반 달성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민주 · 공화 양당 대선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레이스가 4개월여 여정을 마침내 마무리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경선 마지막 '슈퍼화요일'인 7일 본선 티켓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달성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주요정당 여성 대선후보'임을 선언했다. 지난 2월1일 아이오와에서 시작했던 경선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클린턴이라는 사상 첫 성대결의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트럼프는 이날 캘리포니아와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 등 5개 지역에서 치러진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이번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공화당 최종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대의원 1237명을 자력으로 달성했다.

이미 한달 전 십여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최후의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서 득표율 77.6%를 기록하는 등 각 지역에서 공화 유권자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확실한 일인자임을 내보였다.

전날 AP, CNN집계에서 민주당 매직넘버 달성을 인정받은 클린턴도 이날 뉴저지와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노스다코타와 몬태나는 포기를 모르는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에게 내줘야 했지만, 최대 대의원이 걸린 최후의 격전지 캘리포니

아에서 58.1% 득표율을 기록하며 굳건한 입지를 입증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 워싱턴DC 경선이 남아 있지만, 클린턴이 슈퍼대의원을 포함해 매직넘버 대의원 2383명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경선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만 샌더스는 전당대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클린턴, 역사에 기록될 첫 주요정당 여성 대선후보

지난 2008년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경선레이스를 중도 하차했다. 그러나 8년 뒤인 이날, 클린턴은 뉴욕 브루클린 본부에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이정표에 도달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여성이 주요정당의 대선후보가 됐다"며 8년 만에 설욕했다.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쳐 마침내 역사에 기록될 '첫 여성 대선후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클린턴은 "이제 우리는 모두 유리천장을 아래에 두고 서 있다"고 선언하며 "유리천장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장애물은 물리칠 수 있으며, 정의와 평등은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연설로 클린턴은 무대를 장악했다.

클린턴은 트위터를 통해 "큰 꿈을 가진 모든 작은 소녀들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클린턴은 그러면서 경선레이스를 함께 해온 샌더스에게 인사를 건네며

샌더스 지지자들을 빠르게 끌어안고, 11월 본선거에서 맞부딪힐 트럼프에게 화살을 돌렸다. 클린턴은 "도널드 트럼프는 기질상 대통령과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도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소리 높여 비판했다.

즉흥연설을 좋아하던 트럼프도 마지막만큼은 준비된 원고를 발표하며 공화당이 바라는 '안정된 후보'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는 뉴욕 웨체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며 "여러분은 내게 공화당을 이끌 영광을 줬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클린턴은 실패한 국무장관이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를 조작했다는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클린턴 · 트럼프 대선후보 확정...7월 전대서 공식화

클린턴과 트럼프는 이제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양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공화당은 7월 18~21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은 7월 25~28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각각 전대를 열어 대선후보를 추대한다.

다만 샌더스가 다음주로 예정된 워싱턴DC 마지막 경선,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클린턴은 민주당을 통합하고 샌더스 지지자들을 포용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샌더스는 "우리는 워싱턴DC 프라이머리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한 표, 한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선을 완주할 때까지 중도하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샌더스는 클린턴이 선언 대의원만으로는 매직넘버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전당대회까지 지지의사를 바꿀 수 있는 슈퍼대의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 전당대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클린턴으로 뭉쳐 나가야 할 민주당으로서는 샌더스가 다른 의미의 '몽니'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대세가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게 전망된다.

트럼프 역시 멕시코계 연방판사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당내 지도부를 위시한 주류세력의 우려가 재점화된 만큼, 내부적인 갈등 관계를 봉합하고 '공인된 후보'로서의 자질을 다시금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화 1인자 플라잉 상원의원은 트

럼프의 발언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고, 지지를 철회하는 상원의원까지 나타난 탓이다.

따라서 클린턴과 트럼프는 서로를 향한 싸움과 당 내부적인 싸움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대단원의 출발선을 밟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경선이 종료된 뒤 클린턴과 샌더스에게 각각 통화해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클린턴에 대한 공식 지지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욕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자선행사 연설이 그 시기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샌더스와 만난다.

yeoulim@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의 두갈 그린하우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 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 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오바마 다음 美 대통령 누가 될까 증시에 답 있다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는 증시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신문인 '더 맥클레란마켓'의 톰 맥클레란 기술 애널리스트 겸 편집장은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맥클레란 편집장은 "증시의 움직임은 대선 여론의 수치 변화를 약 1주일이나 1주일 반정도 앞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맥클레란 편집장은 미국 뉴욕증시의 지수 와 미국의 정치 전문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ClearPolitics)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두 움직임이 거의 일치했음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0년 대선 때부터 비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대선이 예정된 11월에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더욱 정확해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맥클레란 편집장에 따르면 7일 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도와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움직임이 지난 2주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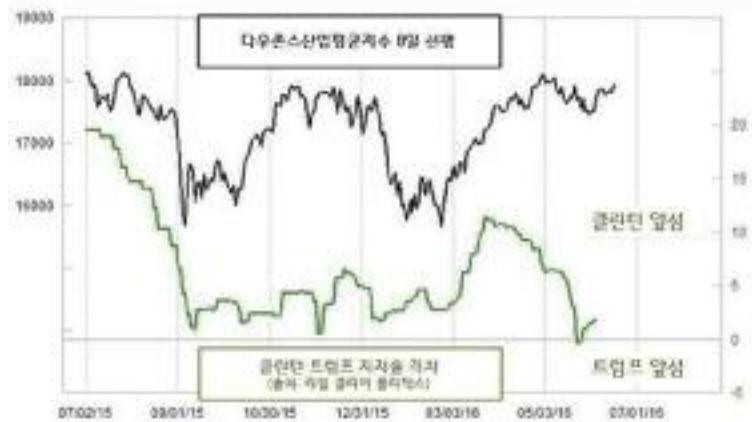
맥클레란 편집장은 "과거 대선에선 강세장 시 정부가 이득을 봤다"며 현재는 클린턴 후보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약세장에선 투자자들이 정부를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증시는 다음 달 초 고점에 이른 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맥클레란 편집장은 이 같은 이론은 공화당 지지자들을 진퇴양난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투자자는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지만 증시 하락은 바라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오는 10월이 되면 대선 결과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고 증시의 향배도 보다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cenes@news1.kr



미국 대통령선거와 뉴욕증시 상관관계 그래프. (출처: 더 맥클레란마켓 리포트 신문)

오바마, 힐러리 지지 선언...힐러리 "영광스럽다"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만난 이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나는 그녀(힐러리 클린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천만 명이 지지를 표명했다. 오늘 나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에 이렇게 적합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녀의 판단력과 강인함, 우리의 가치에 대한 그녀의 의무감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지지 선언은 클린턴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되며 민주당 갈등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 진보 유권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즉각 환영했다. 클린턴은 트위터를 통해 "지지에 영광스럽다

. 열심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선거캠프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의 첫 공동 캠페인이 오는 15일 위스콘신 그린베이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jjtan@news1.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좌)과 힐러리 클린턴(우)

美 위스콘신 주지사 트럼프 지지 보류... "자격 의문"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공화 유력 대선후보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할 멕시코계 판사를 공격한 뒤로 지지 철회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8일 미 정치매체 폴리틱오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 역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보류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경선 초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크루즈가 경선을 포기한 이후에는 누가 되든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할 공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시점을 감안해 여론은 스콧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워커는 최근 트럼프가 히스패닉계 판사에 대한 인종주의적 발언을 쏟아낸 것을 가리켜 대통령

으로서의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서 "그(트럼프)는 아직 대선 후보가 아니다. 7월(전당대회)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지 선언을 거둬들였다.

트럼프는 앞서 '트럼프대학'에 대한 법적 소송을 담당중인 곤살로 쿠리엘 판사가 멕시코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재판에서 쿠리엘 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장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불만으로, 쿠리엘 판사가 편향되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트럼프가 멕시코계 연

방관사를 비판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데 대해 공화 1인자 폴 라이언 상원의원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마크 커크 상원의원(일리노이)은 "트럼프의 발언은 완전히 잘못됐으며 그는 미국인도 아니다"고 폭격을 퍼부으며 지지를 철회했다.

yjw@news1.kr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일,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섬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고작 20분 행동" vs "고작 6개월형" 스탠퍼드 강간 판결 논란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행위를 "고작 20분간의 행동"이라며 옹호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법원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가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고작 6개월형을 선고한 것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전 스탠퍼드대학 수영선수 브록 터너(20)의 아버지 덴 터너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아들에 대한 탄원서에서 "아들은 사건 이후 다시는 전처럼 낙천적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고 얼굴에서는 미소도 잃어버렸다"며 "아들의 인생은 앞으로 절대 그가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꿈꿔왔던 대로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덴 터너는 그러면서 "'고작 20분간의 행동'으로 20년이 넘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대가"라고 말했다.

아들 브록은 2015년 1월 스탠퍼드 캠퍼스 내 클럽하우스 밖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재판에서, 파티에서 만난 브록에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성폭행당한 뒤 다음날 인근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브록이 트럭 뒤에서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며칠 뒤 브록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의 애런 페르스

키 판사는 지난 2일 브록에게 징역 6개월형과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페르스키 판사는 감형 이유로 "브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전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감옥에서의 생활이 가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 터너의 탄원서가 공개되자 트위터를 비롯 SNS에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같은 스탠퍼드대 출신인 피해 여성은 재판에서 터너의 탄원서 내용과 관련 "나는 하룻밤의 술자리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본인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본인이지만 내 인생을 망친 것은 절대 잊지 말아라"며 "브록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작가 로렌 디스테파노는 트위터에 "강간을 저지른 운동선수는 '실수를 저지른 선수'가 아니라 '수영도 할 수 있는 범죄자'라며 납득이 어려운 법원의 관용과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아버지를 강하게 비판했고, 이 트윗은 순식간에 1만2000번 이상 리트윗됐다.

결국 '더 체인지'(the change.org petition) 온라인 청원 사이트는 페르스키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8만6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은 "페르스키 판사가 명문대의 백인 운동선수인 브록에게 관용을 베풀어 성 범죄에는 사회적 지위, 인종, 성별 등 어떤 요소도 고려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실패했다"며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확립하는데 힘을 보태자"고 호소했다.

yung@news1.kr



스탠퍼드대 강간사건 피의자 브록 터너(20)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트윗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경제 전문가 과반수 "美 7월 금리 인상" 예상

WSJ 설문조사 "고용지표 · 해외금융 안정 조건" 응답자 30% "9월 인상"... "연내 불가" 비중은 3%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월가전문가들 과반수는 이번 여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공개한 이코노미스트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가 2차 긴축 시점을 오는 7월로 전망했다. 지난달에는 전체의 21%만이 7월 인상을 점쳤었다.

반면 6월 인상을 전망한 답변은 전체의 6%에 그쳤다. 지난 조사 때는 31%보다 확 낮아진 수치다. 이번 서베이는 업계와 학계 경제 분석가 64명을 대상으로 3~7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포인트로마나자렌대학의 린 리저 이코노미스트는 "6월 고용보고서가 다시 (금리인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2차 긴축 시점을 7월로 내다봤다.

9월이나 2차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은 30%로 나왔다.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8%를 기록했고, 내년 3월

이후를 내다본 답변은 3% 수준이었다.

내년 3월 이후를 점치는 라지브 다완 조지아주립대 경제예측센터 국장은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미룰 것"이라며 "그래야 투자지형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7월 금리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6월 고용보고서가 부진하지 않고 해외 금융시장 혼란이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DS이코노믹스의 다이앤 스윙크 이코노미스트는 "6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고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로 결론 나지 않으면 7월 가능성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는 6월 금리인상 확률을 12%로 내다봤다. 7월은 42%, 9월은 40%로 각각 나타났다.

sub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worshipfrontier.org/music-academy

WF 뮤직 아카데미

Intensive Summer Music Academy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Worship Frontier Music 전문 음악 강사들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 수업진행방식:

- 핵심적인 음악이론 공부와 악기레슨
- 앙상블을 통한 실제적인 악기레슨
- 기간동안 매주 별도의 한시간 개인레슨 제공
- 배운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공연예정(마지막주)

• 기간: 6월 30일(목) - 8월 18일(목), 매주 목요일(총8주)

- 청소년반: 3:30pm - 6pm

- 성인반: 6:30pm - 9pm

• 악기: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기타, 피아노, 보컬

• 강사: WF 전문음악인(버클리 및 타음대 BA 및 MA)

• 수업료: \$250

주관: Worship Frontier Music

장소: 1310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등록 및 문의: 이덕천(WF Music Academy Director)

worshipfrontierfb@gmail.com Cell) 617.835.4868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CRG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도별 \$7000, 주거면적 3072 sq. ft. 현대화되어 50년 관입, Garden,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강력히 있는 위치.</p>	<p>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35,000, 주거면적 2300sq, 대지면적 4000sq, 멋진 학교 및 근린 편의 Green Line D 근입, 우수 조망의 위치, 풀 근입, 5 year Roof, 현대화된 heating system, 2차원</p>	<p>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음, 총 수납 약 95,000, 대지 면적 8599 sq.ft, 년차 \$6800</p>	<p>Newton \$1,200,000 2가구주택, 연수입 \$81,500, 대지면적 6200sq. ft, 일대일로 향의 위치 있음, 연도별이 멋진 위치(T 근입, 보스톤힐리지</p>	<p>Newton \$1,999,000 30년 새 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00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25년, 화장실 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p>
<p>Newton \$999,000 2013년 새 집, 합 4개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거드론 새 집 가격, 주거 면적 3890sq. ft, 대지 면적 70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p>	<p>Reading \$ 385,000 30년 새 콘크리트, 멋진 학교, 근린 편의, 연도별이 멋진 위치(T 근입, 보스톤힐리지, 95 고속도로 근입, Garage Parking</p>	<p>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 집, 합 4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3000sq. ft, 대지 면적 10725 sq. ft, Hardwood floors</p>	<p>Boston Fenway \$ 364,000 합 4개, 화장실 2개, 주거면적 6780sq. ft, 콘크리트 3 층, Hardwood floors,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p>	<p>Winchester \$1,290,000 2013년 새 집 최고의 학교 합 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0sq. ft, 이후 비록 최고의 학교, 환상적인 조망</p>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경기 하강위험 높다"...사상최저 금리로 발빠른 대응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 높아
"자본확충펀드 규모 충분"...수은 직접 출자 여부는 "금통위가 결정할 것" 선긋기

(서울=뉴스1) 전보규, 정연주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은 1.5%로, 결정은 경기 하강 위험에 선제 대응해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연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신호를 줄 것이라 관측이 많았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구조

경제 성장세가 예상을 밑돌 것이라 전망,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대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전날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고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들은 2018년까지 인력의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쳤다.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유일하게 경제를 떠받쳤다.

우리나라 경제는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집행으로 재정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반기가 문제"라며 "예상보다 부진한 글로벌 교역,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진 것으

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은 정부의 재정보다 중앙은행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자본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고 정부의 현금 출자 등의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자본확충펀드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 출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수은에 대한 출자를 고려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출자할 정도의 위기인지는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1조원으로 조성된 자본확충펀드는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하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는 견해도 밝혔다.

jbk8801@news1.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6월 금통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조정 가속화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 국내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Umi Cho (우 수희)

508-641-8924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NE 10 - JUNE 16,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Krazy Korean cheesy balls! Make everyone's mouth water at your table with this crispy and cheesy potato balls!

부드러운 치즈와 담백한 감자의 절묘한 조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있는 치즈 감자 고로케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 ea.</p>	<p>FRI/SAT/SUN ONLY 10/11/12 ONLY Ataulfo Mango 아틀포 망고박스 \$10.99 box</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lb.</p>	<p>FRI/SAT/SUN ONLY 10/11/12 ONLY Sun Gold Kiwi 썬 골드 키위 박스 \$22.99 box</p>	<p>FRI/SAT/SUN ONLY 10/11/12 ONLY 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1.99 lb.</p>
<p>Nagaimo 일본 마 \$3.99 lb.</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 l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p>	<p>Hami Melon 하미 멜론 \$0.99 lb.</p>	<p>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 - 16oz. \$0.99</p>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p>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7.99 lb.</p>	<p>FRESH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등심 스테이크 \$9.99 lb.</p>
<p>Sliced Beef Rib Eye Roll for Bulgogi 냉동 소불고기 \$5.99 lb.</p>	<p>FROZEN Boneless Smoked Duck 냉동 훈제오리 \$12.99 lb.</p>
<p>FROZEN Cornish Hen 냉동 영계 \$2.49 lb.</p>	<p>Marinated Sliced Pork CT Butt 양념 돼지 목살 \$5.99 lb.</p>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p>FRESH Catfish 메기 \$1.49 lb.</p>	<p>FROZEN Salted Golden Pompano 냉동 자반 병어 \$5.99 lb.</p>
<p>TONGTONGBAY Salted Mackerel Butterfly 통통배 The 맛있는 고등어 10oz./pkg. \$2.99 FROZEN</p>	<p>TONGTONGBAY Sliced Small Octopus 통통배 절단 낙지 1.5 lbs./pkg. \$7.99 FROZEN</p>
<p>TONGTONGBAY Cooked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바지락살 1 lb./pkg. \$3.99 FROZEN</p>	<p>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8oz./pkg. \$8.99 FROZEN</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9.99 Smart Card Only</p>	<p>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 \$14.99 Smart Card Only</p>
<p>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box \$9.99 Smart Card Only</p>	<p>해오름 밥도둑 전장김 HAIOREUM Premium Roasted Seaweed Jarae/Parae/Rock - 3.5oz. \$3.99 Smart Card Only</p>



HMART NOW HAS AN APP & REFRESHED WEBSITE!

THE HMART APP IS NOW LIVE, DOWNLOAD IT AND VISIT OUR REFRESHED WEBSITE FOR ALL HMART SALES, PROMOTIONS, AND EVENTS.

H마트의 각종 세일 아이템과 할인 쿠폰들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H마트 모바일 앱과 더욱더 보기 편리해진 웹사이트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p>농심 맛짬뽕 NONGSHIM Spicy Seafood Champong Noodle Soup 4.7oz. x 4ea./pkg. \$6.99</p>	<p>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후이퐁 스리라차 소스 28oz. \$2.5</p>	<p>케이타운 남원 전통 주어탕 KTOWN Cooked Seasoned Loach Soup 15.8oz. \$5.99</p>	<p>사용원 김말이 튀김 SA ONG WON Deep Fried Seaweed Roll Original/ Spicy 1.12 lbs. \$4.99</p>	<p>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8.11oz. \$2.5</p>
<p>HAI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11.46oz. \$2.99</p>	<p>동서 맥심 커피 믹스 DONGSUH Maxim Coffee Mix Original/Mocha Gold Mild - 100ct/box \$12.99</p>	<p>광동 비타500 KWANGDONG Vita 500 Vitamin Drink 3.3fl.oz. x 10btl./ box \$4.99</p>	<p>POPCORNERS Popped Corn Chips 팝콘너스 콘칩 All Varieties/ 5oz. \$0.99</p>	<p>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34fl.oz. \$4.99</p>
<p>VITA COCO Pure Coconut Water 비타 코코 코코넛 워터 1L \$2.99</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3.99</p>	<p>LIFE CITY Ice Shaver 라이프시티 아이스 빙수기 (수동) ea. 16.99 \$7.99</p>	<p>피크닉 돛자리 Straw Floor Mat 150 x 180cm/ea. 16.99 \$4.99</p>	<p>KOTO Bone China Square Bowl 고토 본 차이나 사각면기 7"/ea. 5.99 \$3.9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정세균 더민주 의원 사실상 확정

의원총회서 121표 중 71표 얻어...14년만에 野 출신 국회의장, 오후 본회의서 선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정하 인턴기자 = 20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협의를 거쳐 자당 몫으로 정해진 국회의장 후보로 정세균 의원을 선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20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무기명 투표를 거쳐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국회의장 후보 경

선에서 총 121표 중 과반인 71표를 얻어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문희상 의원은 35표를 얻었고, 이석현 의원은 6표(이상 6선), 박병석 의원(5선)은 9표를 각각 얻는 데 그쳤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2002년 16대 국회 당시 박관용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오른지 14년만이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어야 해 정 의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

정 의원은 수락인사를 통해 "국회의장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국가와 국회 그리고 우리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

는 최선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가 더민주에 대한 신뢰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할 때는 성원을, 잘못할 때는 매서운 질책을 해줘 이 순간의 초심을 잃기 마지막 날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원구성 극적 타결 '국회의장' 더민주, '법사·운영·기재' 새누리

국회의장단 선출 9일, 20대 국회 개원식 및 상임위원장 선출 13일 새누리 '실리', 더민주 '명분', 국민의당 '실속' 3당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조기에 타결돼 만족" 한 목소리

(서울=뉴스1) 최중무 기자, 김정률 기자, 박승주 기자,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8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이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20대 국회는 첫 임시회가 소집되지 하루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지각개원' '위법 국회'라는 시비와 불명예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 가량 걸렸던 원 구성을 49일이나 앞당긴 것이다. 4·13 총선의 민의인 '협치' 요구를 여야 3당이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여야 3당은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20대 국회 개원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가 맡기로 했다. 2인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몫으로 돌아갔다.

여야 3당은 이날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

위, 정무위, 안행위, 미방위, 정보위, 국방위 등 8개, 더민주가 예결위, 환노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위, 농해수위, 여성가족위, 윤리위 등 8개 맡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산자위를 맡게 됐다.

여야 간 살아 싸움이 치열했던 상임위 중 새누리당이 법사위, 운영위, 기재위를 맡아 '실리'를 챙겼고, 국회의장직을 차지한 더민주는 통상 여당 몫이었던 예결위와 외통위를 맡게 되면서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은 알짜 상임위로 통하는 교문위와 산자위를 얻어 '실속'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이날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누가 20대 국회 첫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를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더민주가 의장직을 맡기로 하면서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과 5선의 박병석 의원 등 4파전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여야 3당은 이날 원 구성 합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빨리 원 구성을 매듭짓고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 만큼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챙기겠다. 청년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돼 그나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모면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정상적 개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지켜 다행으로 생각하고 더민주가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많이 양보했고, 이상호 원내대표도 양보해줘서 합의가 잘 됐다"며 "그래도 물꼬를 터준 것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다. 진짜 친구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서 의원에게 공을 돌렸다.

ykimf@news1.kr

김재원 "여야 자주 찾고 늘 경청" 靑 정무수석 취임 일성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 따라 국민 섬기고 나라 위해 일하겠다"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맞춰 여야 지도부 예방할 듯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김재원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무수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늘 소통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여당은 물론 야당을 자주 찾아 뵙고 늘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도 덧붙였다.

김 수석은 20대 총선 낙선 후 중국 외교학원의 방문학자로 초빙돼 지난 달 24일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비자 교체를 하러 잠시 귀국했다가 뒤늦게 발탁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김 수석은 국회를 언제 방문할지 묻는 질문에 "일단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국회 개원 연설을 하는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자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7월 10일 임명돼 나흘 만인 14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김 수석은 "그 이후에는 국회와 언제든지 자주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김 수석은 여야 의원들의 연락을 받느라 바쁘다는 후문이다.

한편 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수석 역시 김 수석과 함께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취임 인사를 나눴다.

girin@news1.kr



김재원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신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진로 위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희가 그 길의 모든 장애물을 피하고 넘기며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강한 정신력과 높은 이상을 개발시킬 것입니다. 미육군에서는 그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인 프로그램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공을 위한 길의 첫 걸음을 미육군과 함께 하십시오.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강한 미육군으로 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800-USA-ARMY의 미육군 신병모집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거나 goarmy.com의 "FOR PARENTS" 섹션을 방문하십시오.

WESTWOOD ARMY CAREER CENTER
372 Washington Street, Westwood, MA
SGT Casey McNally Tel. (781) 251-0122
www.facebook.com/sgt.mcnally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536



- 1**
-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 IELTS
 - Business English
 - Daily Conversation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2009. Paid for by the United States Army. All rights reserved.

"강간당한게 뭐 큰일이나"...섬마을 여교사 신상털기 · 악플 기승

교원단체들 "악성댓글로 인한 2차 정신적 피해 우려"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가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피해자인 여교사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도 달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가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해당 교사의 '신상털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 교사뿐 아니라 관련 기사에 인터넷부터 다른 도서·벽지 지역 교사들의 신상털기까지 이어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다른 도서·벽지지역 교사들은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같은 여교사 입장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며 인터뷰에 응했다"며 "이 교사들이 네티즌들로부터 신상이 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여교사와 다른 도서·벽지 지역 교사를 향한 악성 댓글도 문제다. 네이버·다음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성폭행 피의자를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지만 피해 여교사에 대한 일부 공격적인 댓글도 포착된다.

한 네티즌은 "권하는 X도 웃기고 마시는 X도 웃긴다. 똑같은 것들끼리"라고 피해 여교사를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인가요?"라며 "여자 한명 강간

당한게 뭐 큰일이라고"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피해 여교사 등의 신상털기와 악성 댓글이 계속되자 교육단체도 나서 2차 피해 방지를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일부 언론 보도와 다양한 게시판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거나 주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나 글이 나오게 된 경위도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전남교육청은 사건 진상 파악 결과를 토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침을 밝히기 위해 사건 공식 브리핑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사건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피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도 급속히 확산돼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는 인터넷, SNS 상의 피해 여교사 신상정보 삭제 등의 대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변인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지에서도 악성 댓글이 끊임없이 올라와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드러나거나 지역·학교명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im91@news1.kr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공모'정황 뻔한데 막무가내 부인...왜?

전문가들 "의미 없는 공방...공모 아니라도 강한 처벌 가능"
"피의자들이 부인한다 해서 공모관계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공모'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형, 형법상 강간치상형과 '무기 또는 징역5년이상'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20대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성폭행 피의자들 3명 가운데 2명이 피해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학생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3명이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노와 충격을 동시에 몰고 왔다.

전남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들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피의자들은 묵비권 행사, 범행은 물론 범행 공모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며 이해 못할 꾀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죄는 지었지만 벌은 받기 싫은 파렴치한 변명에 여론이 들끓는다.

◇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공모는 안했다"?... 피의자 공모사실 전면 부인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는 식당주인인 학부모 박모씨(49), 마을주민 이모씨(34), 또 다른 학부모인 김모씨(39) 등이다. 이 세명은 모두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CCTV영상, 전화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을 사전계획·공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을 포착했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따져봐도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임에도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박씨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어 전화를 걸었을 뿐"이

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김씨는 박씨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여교사 혼자 남아 있던 관사로 이동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공모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들의 범행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이씨는 여교사를 관사로 데리고 이동한 박씨의 뒤를 따라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김씨는 박씨에게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피의자들은 이미 DNA 등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조직적·계획적 범죄임을 추론케 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공모관계만은 철저히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 '공모' 부인 이유는 형량 때문?...그러나 강한 처벌 피할 수 없어

여러명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는 것은 이미 일반인들의 법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에 대한 강한 처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폭력처벌법은 4조(특수강간)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 공모(2명 이상이 합동)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에 대한 양형은 징역 5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끝까지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씨와 이씨, 박씨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부인해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김씨와 이씨 박씨 등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하고, 저항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사실은 피의자들의 형을 따져보는 양형과정에서 '가중인자'로 적용된다. 게다가 '공모' 여부까지 입증되면 '특별 가중인자'가 적용돼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피의자들이 제아무리 '공모' 사실을 부인한들 강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도 "공모관계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며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선례를 유지하고 있다. 즉 박씨, 이씨, 김씨가 사전에 서로 상대방이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을 할 것이라는 상호이해가 있었다면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공모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밖에 공모여부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을 바탕으로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선례도 남긴바 있다.

◇ 전문가 "공모 입증여부와 상관없이 무기징역까지 가능"

경찰은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공모 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공모가 인정되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수 범법 전문가들은 공모 여부 입증과 관계없이 이들을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씨 이씨 박씨 등이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고,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판례에서도 '상해'로 인정하고 있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또 "피의자들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 등 상해를 입은 만큼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간치상죄 역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수강간과 법정형이 같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피의자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들의 자백이 없어도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례 역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상해'로 판단해 왔다.

결국 공모사실 인정여부와 관련없이 이번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은 엄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립라, 코래지 쉐,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로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피부를 갖고 있는 계층,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제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전문점/이탈리아 도매
홍은희

검찰, '주식특혜' 진경준 뇌물 등 공소시효 상관없이 철저조사

주식 매입자금 출처 넥슨, 김정주 NXC 대표 소환 초읽기...대가성 들여다볼 듯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김수완 기자 =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49·헌법무원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의혹과 관련,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원의 출처가 넥슨 측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를 사실상의 '뇌물'로 보고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진 검사장의 의혹과 관련, 뇌물과 횡령·배임의 공소시효(10년·7년) 종료 여부와 별개로 주식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되팔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자금과 관련,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다가 이후 개인자금과 가족들의 돈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해명이 신뢰성이 떨어진 만큼 대가성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우선 넥슨이 주식 매입자금을 진 검사장에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준 경위와 그 출처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또 진 검사장이 넥슨주식을 보유한 후 넥슨 관련 수사나 송사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업무상 편의를 봐줬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와 대학동기로 친분이 있는 진 검사장은 2002~2004년 수상한 돈거

래를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과경근무에 이어 2009~2010년 증권·금융비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도 지낸 바 있다.

김 대표가 일반인이 쉽게 사들이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진 검사장에 사실상 뇌물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성으로 진 검사장이 뒤를 봐준 정황이 나온다면 수위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주식 매입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달 17일 법

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앞선 4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진 검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청구 논의를 위한 검찰위원회 개최시기를 중앙지검의 수사종료 이후

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관련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기에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감찰위원회도 수사 내용이 반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cho84@news1.kr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野 "진경준 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청문회·특검 도입도"

검찰 향해 더민주 "조직 명예 걸고 실제 파헤쳐야"
국민의당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게임업체 넥슨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관련해 6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진경준 검사장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진경주-김정주 커넥션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진 검사장이 어떤 경위로 넥슨의 주식을 매입하게 됐는지, 왜 넥슨의 돈으로 넥슨의 주식을 사고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날 것이며 다시 한번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특수한 관계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

고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았다는 사실에 비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서면 논평을 통해 "진 검사장과 넥슨의 거짓말 행진이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며 "도둑을 잡아야 할 검찰이 도둑 혐의를 받는 것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사건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낸 진 검사장이 넥슨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는지 역시 명백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의 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은 국회 청문회 실시는 물론 강력한 의지로 특검을 도입할 것"이라며 "검찰이 자정할 수 있는 최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parksi@news1.kr

IT 업계 태어난 '검풍'에 몸살... 구글부터 넥슨까지, 커지는 CEO 리스크

'옥시 파문' 이어 넥슨 주식 논란 일파만파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대기업 위주의 재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검찰의 칼끝에서 자유로운 IT업계가 최근 태어난 '검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건강권'이 무참히 짓밟힌 옥시사태부터 사회지도층의 특혜논란으로 비화된 넥슨 사태까지 최근 굵직한 이슈에 IT업계 최고 경영진이 연루돼 있어서다.

4·13 총선 직전 불거졌다 한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넥슨의 주식특혜논란은 최근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알짜' 비상장 주식을 진경준 검사장 등 지인에게 돈까지 빌려주며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넥슨은 지난 4일 "진 검사장을 포함한 주식 매수인들이 근시일 내에 자금 상황이 가능하다고 해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김 검사장 외에 김상현 네이버 대표(당시 LG전자 부사장), 박모 전 NXC 감사 등에도 주식 매입자금을 동일하게 빌려줬다. 당초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개인 자금과 가족들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힌 게 허위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진경준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에 연루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대한 검찰 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사들인 뒤, 넥슨이나 김 회장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김상현 네이버 대표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진 검사장과 같은 시기에 넥슨에게 돈을 빌려 해당 주식을 매입해 일반인이 얻기 힘든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는 "주식 거래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해당 논란에 즉답을 피해왔다.

넥슨 주식 논란이 배임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들 모두 국내 IT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3조원의 매출을 거둔 국내 최대 IT기업이고 넥슨 역시 연 매출 2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고 게임사다.

구글코리아는 존 리 대표가 옥시사태와 연루돼 있어 비상인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달 소환조사에 이어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대표는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코리아의 대표를 역임했다. 그가 가슴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기도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구글코리아 내부에선 대표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CEO 선임 과정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존 리 대표의 소환 때부터 이미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리 대표가 지난해 개소한 '캠퍼스 서울'을 통해 중소 스타트업 육성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로 인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IT업계를 이끌고 있는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검풍'에 휘말리면서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넥슨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구글도 '알파고 대결' 등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받았다.

imlac@news1.kr



현재 구글코리아의 대표 존 리 옥시사태 관련 코리안 전 대표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마카오농물, 서울설렁탕의 비전, 국명, 보양, 특유의 향미,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Facebook: BeefSoup.com



Seoul or Udon? in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5.8888
Facebook: SeoulBar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7 - 8/5
Courses, SAT Prep, Competition Math
가을학기 시작 9/6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우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전역지사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김형진
781-956-0409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1,399,900 Newton Center, MA 3 Beds, 2.5 Baths, 3,150 sf. 2013 새집, 최고의 학군과 교통 지하 Play Rm&1Bd Anna Jung 617-780-1675	 \$664,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76sf. 잘 꾸며진 정원, cul de sac, 넓은 master suite, 새 부엌 이현주 401-935-3397	 \$1,049,000 Acton, MA 4 Beds, 4 Baths, 3652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Gina Choi 978-866-3248	 \$1,149,000 Lexington, MA 5 Beds, 2.5 Baths, 2,907sf. 최고의 학군, 대중 교통 조용하고 편리한 환경 신보경 508-361-6064
--	---	---	--

단독주택 Single Family Condo Rental

 \$349,900 Framingham, MA 3 Beds, 2 Baths, 1,750sf. Fenced Large Back yard, Updated Interior Steven Son 617-290-0623	 \$649,900 Andover, MA 4 Beds, 2.5 Baths, 2,377sf. 좋은 학군, 조용한 환경 아름답고 넓은 정원 Janice Lee 978-806-6023	 \$325,000 Acton, MA 2 Beds, 1 Bath, 1,107sf. 넓은 대지 (0.36 Acres) 좋은 학군, 새 건축에 좋은 기회 Anna Jung 617-780-1675	 \$1,500 /mo. Arlington, MA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 캠브리지 옆, 편리한 교통, 조용하고 안전한 주택가 Hazel Seung 617-895-7676
---	---	---	--

Condo Rental New Construction

 \$1,835/mo. Brighton, MA 1 Beds, 1 bath, 609 sf. 전철역 (Green Line) 인접 Wholefoods Market Steven Son 617-290-0623		 콘도/타운하우스/단독주택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	---	---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Boston, MA Downtown Crossing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New Star 781-259-4989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540 sf. 이현주 401-935-3397	APT Rental \$1,000/m. utility포함 Willmington, MA 2 Beds, 1 bath, 1,200 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Michael Yun 617-459-5985	Condo Rental \$2,000/mo. Waltham, MA 2 Beds, 2 bath, 1,060 sf. Shell Yu 781-526-2416	Condo Rental \$2,200/mo. Luxury Condo Allston, MA 2 Beds, 2 bath, 850 sf. Steven Son 617-290-0623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여명의 매출실적 / 60여 지역 3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스티븐 손
617-290-0623



박성종
617-304-7001



Steve Yoo
617-386-3451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Pick-up Cleaners Exclusive	Pick-up Cleaners Exclusive	Full Plant Dry Cleaner Hot Listing	Full Plant Dry Cleaner Exclusive
---	---	---	---

\$70,000 Wakefield, MA Busy Street, 넓은 주차장 x/ CVS, 은행 & hair salon AnnaJung 617-780-1675	\$149,000 Waltham, MA 활 안에 위치, 상업중 신규 또는 확장 모두 적격 스티븐 손 617-290-0623	\$159,000 연매상 \$300k I-495 근접 경철필요 대부분 새 기계, 은퇴매각 탄탄한 단골, 보장된 수입구조 스티븐 손 617-290-0623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장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	---	---	---

Deli & Meat Exclusive	Restaurant Exclusive	Restaurant Exclusive	Restaurant Exclusive
--	---	---	---

\$150,000 Brockton, MA (Busy Mall) 2,200 sf Lottery cigarette 연매상 \$900,000 25년간 운영 AnnaJung 617-780-1675	\$500,000 Harvard Square (Cambridge)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120seat Capacity AnnaJung 617-780-1675	\$499,900 Brookline, MA Including Liquor License 5000 sf, 180 Seat Capacity AnnaJung 617-780-1675	\$120,000 연매상 \$180k I-95/128 근접 상업중인 한국 식당, 은퇴매각 Wine/Beer Permit, Low Rent 스티븐 손 617-290-0623
--	--	--	---

Nail Salon Exclusive	Nail Salon Exclusive	Nail Salon Exclusive	Restaurant Exclusive
---	---	---	---

\$150,000 Burlington, MA 스타벅스 옆 1001/10P ATM, 60 inch TV 4대 포함 AnnaJung 617-780-1675	\$250,000 Lexington, MA 1,850 sf. 넓은 주차공간 좋은 위치, 고급 시설 Anna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Porter Square 400sf. 넓은 주차공간 AnnaJung 617-780-1675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 Bar 상업중인 인형된 식당 SJ Park 617-304-7001
---	---	---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xt to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95,000
Boston, MA
 아주 붐비는 위치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Jung 617-780-1675

프랜차이즈
 한국 식당, 카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셋업 무료상담
 SJ Park 617-304-7001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패츠가 수퍼볼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엇스 팬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팀 역사상 최고의 해로 꼽히는 때가 2004년이다. 물론 그 해에 패트리엇스는 수퍼볼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2004 시즌에 패트리엇스는 단 2패만을 기록했다. 그나마 시즌 후반 마이애미와의 경기는 거의 버리는 경기였다. 당시 패트리엇스는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는 2번째로 적은 점수를 허용하는 팀이었다. 공수 양면에서 약점이 없는 조화로운 팀이었다.

스타 코너백 타이 로가 7주차에 부상을 당했지만 패트리엇스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 뛰어났다.

공격에서는 탐 브래디를 중심으로 디온 브랜치와 데이빗 기븐스가 있었고 코레이 딜런의 러싱 공격도 뛰어났다. 당시 코칭 스태프도 역대 최고로 꼽힌다.

2016년의 패트리엇스를 2004년의 패트리엇스와 견주어 본다면, 올해의 패트리엇스도 수퍼볼 우승 가능성이 충분한 팀이다. 2004년과 비교해도 관촬을 정도로 좋은 팀이다. 오픈시브 라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실치 않고, 눈에 띄는 러닝백이 없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패트리엇스 수비에는 제이미 폴린스, 단테 하이타워, 말콤 버틀러와 같이 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떠오르는 스타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브래디는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잊은 듯하고 탐 그롱코스키는 가장 막기 어려운 선수다. 코칭 스태프는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현재 팀 구성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번 시즌의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지난 시즌이 좋은 예다. 시즌 중반 이후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는 악재가 쌓이면서 초반의 무서운 기세는 시즌 후반에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수퍼볼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좌절되었다.

만약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컨디션을 유지하고, 홈필드 어드밴티지까지 얻는다면 올해도 패트리엇스는 수퍼볼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올해까지다.

2017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 샬러캡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스타급 선수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기는 어렵다.

하이타워와 폴린스, 두 선수를 모두



나이를 잊은 듯한 탐 브래디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다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버틀러의 연봉 인상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버틀러의 몸값은 오를 것이다. 로건 라이언, 듀런 하먼 같은 선수도 지금 당장 프리에이전트가 된다. 현재 패트리엇스의 주요 선수들이

연봉 문제 때문에 모두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이 모두 2017년 시즌에도 패트리엇스 유니폼을 입고 뛸 수는 없다.

2004년 우승 이후 많은 선수들과 코치가 패트리엇스를 떠났다. 이후 패트

리어츠는 로스터를 거의 새로 만들어야 했다. 올해 시즌 이후에는 2004년처럼 많은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수퍼볼 우승을 놓치면 한동안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

jsi@bostonkorea.com

박병호, 시즌 11호 홈런... 오승환은 'KKK' 시즌 10홀드

(서울=뉴스1) 이재상, 권혁준 기자 =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시즌 11호 홈런을 쏘아올렸다.

박병호는 8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출전해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했다.

박병호는 4-5로 뒤지던 6회말 1사에서 마이애미 선발 천웨인을 상대로 좌중월 솔로포를 때려냈다. 지난 6일 탬파베이전에서 아홉수를 끊어내고 10홈런을 달성한 뒤 2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었다.

박병호는 1스트라이크에서 천웨인의 2구째 86마일(138km)짜리 낮은 슬라이더를 걸어 올려 펜스 2층으로 향하는 대형 아치를 쏘아 올렸다. 실투가 아닌 낮게 떨어지는 공이었지만 박병호 특유의 어퍼 스윙이 빛나는 장면이었다.

구단 공식 SNS에 따르면 박병호의 홈런 비거리는 419피트(128m), MLB.com의 스탯캐스트에는 124m가 기록됐을 정도로 큰 타구였다.

박병호의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미네소타는 7회말 트레버 플루프와 브라이언 도저의 연속 적시타로 7-5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박병호는 7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추가해 시즌 9번째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이날 4타수 2안타(1홈런) 1타점을 기록한 박병호는 시즌 타율도 0.220(173타수 38안타)으로 끌어 올렸다.

미네소타는 2점 차의 리드를 잘 지켜내고 7-5로 승리했다. 2연승의 미네소타는 18승(40패)째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경기에서 8-5로 앞선 7회말 등판해 1이닝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1.76에서 1.70으로 낮췄고 시즌 탈삼진은 45개가 됐다.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해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홀드도 추가했다.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아담 듀발을 상대로 3볼1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를 빠른공으로 이겨내고 7구 끝에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다음 타자 유지니오 수아레즈와의 승부에서도 2볼 이후 빠른공으로 카운트를 잡은 뒤 6구째에는 슬라이더를 던져 또 한 번 삼진을 기록했다.

기세가 오른 오승환은 빌리 해밀턴과의 승부에서도 삼진을 잡았다. 5구만에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30안타를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12-7의 승리를 거뒀다.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전적 31승28패로 내셔널 리그 중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김현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

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나란히 1안타 1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4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장한 강정호는 5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92가 됐다.

강정호는 1회말 무사 2,3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97마일(약 156km)의 빠른 공을 받아 쳐 우중간 안타로 연결했다. 이 타구에 3루주자가 홈을 밟았다.

강정호는 2사 후 2루를 훔쳐 시즌 첫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첫 타석을 기분 좋게 출발한 강정호는 나머지 네 타석에서는 안타없이 삼진만 2개 당했다. 세 차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피츠버그는 연장 10회초 수비에서 한 점을 내줬고 10회말 공격에서 이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5-6으로 패했다.

2연승이 끊긴 피츠버그는 시즌 전적 32승 27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starburyny@news1.kr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외지출: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공품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조기 위암의 내시경 시술과 복강경 수술에 대한 흔한 궁금증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조기에만 발견해도 완치 가능성 높아 단, 조기발견시 치료성과울 좋은 만큼 수술방법도 중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위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이번주 휴람의 료정보는 휴람네트워크 중앙대병원을 통해 조기위암의 내시경 시술과 복강경 수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위암 내시경 시술에 대한 흔한 궁금증 3가지!

▶ 위암 내시경 시술, 어떤 환자가 받나요? : 위의 표면 부위에 해당하는 점막에 국한된 '2cm 이하'의 궤양이나 주위 림프 혈관으로 전이되지 않은 '분화형 조기위암'의 경우에 가능하다. 최근엔 2cm 보다 큰 궤양도 내시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위암은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는게 좋다.

▶ 내시경 시술 후 재발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한 경우 5년 이내에 국소적으로 재발하는 비율은 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5년 이후에 다시 생길 확률은 3.3~14%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조기 위암의 수술 후 재발률 1.4~2.8%와 비교해보면 내시경으로 암이 완전히 절제됐다면 재발 위험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시술 후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 합병증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내시경 시술은 위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신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보다는 간단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암 조직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위벽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시술 후에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퇴원하게 된다. 하지만 드물게는 퇴원 이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원 후 검은 변을 보게 되면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또한 암조직이 완전히 절제가 안 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재시술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중앙대병원 외과 김재규 교수의 CASE STUDY

▶ 어떤 환자인가요? : 역류성식도염으로 신물과 트림 증상이 있어 소화기내과를 정기적으로 다니던 환자다. 주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이상소견이 나타났다.

▶ 치료 과정은? : 위 표면에 1cm 가량의 평평하고 움기된 모양의 암부위를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점막하 박리술(BSD)'을 받았다. 이 시술은 위

나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올가미와 특수기구를 사용해 용종을 떼어내는 기존 점막 절제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점막 아래에서부터 360도로 절개, 도려내는 수술법이다. 제거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선암으로 밝혀졌고,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는 없었다.

▶ 현재상태는? : 현재 먹는 약으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 약제는 위산의 생성을 억제해서 위점막의 회복을 돕는다. 역류성식도염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 환자는 한 가지 약제로 두 가지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

위암 복강경 수술에 대한 흔한 궁금증 3가지!

▶ 어느 경우까지 복강경 수술을 하나요? : 복강경 위암 수술은 옆구리쪽에 4-5개의 구멍을 낸 뒤 공기를 넣어 관찰하기 쉽게 내부를 부풀어 오르게 한 뒤 수술기구를 넣고 모니터를 보며 암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위암 1기까지가 복강경 위절제술 대상이다. 2기 이상일 때는 개복 수술을 하게된다. 특히 암세포가 장막으로 침범됐거나 림프절로 전이된 진행성 위암 일때는 복강경 보다는 개복 위절제술이 더 유리하다. 항암치료는 수술로 암부위를 완전 절제한 후 조직검사 결과가 2기 이상으로 나왔을 때나 진단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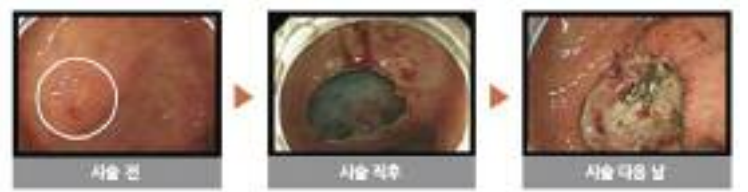
시 수술이 불가능한 4기일 때 시행한다.

▶ 중앙 크기가 작는데 위를 그렇게 많이 잘라내야 하나요? : 아무리 작은 초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전이할 수 있고 추후에 재발할 위험이 있다.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위치에 따라 60~100%의 위를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 또한 절제하는 것이 표준 수술법이다. 사실 사람은 위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위 이식수술'은 못 들어 보았을 수 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기는 대부분 소장이기 때문이다. 위절제술 후 위가 작아지거나 없어져도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다. 다만,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잠시 저장하는 위의 기능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식사 시간과 방법, 섭취량을

잘 조절하여 적응해나가야 한다.

▶ 복강경 수술을 받았는데 항암방사선치료도 받아야 하나요? : 보통 내시경과 CT 검사 소견으로 1기에 해당되면 대개 복강경 수술을 받는다. 하지만 수술로 떼어낸 암세포를 검사해보면 수술 전 검사의 병기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10% 정도 된다. 따라서 위암 1기로 예상돼 복강경 수술을 받아도 최종 결과가 2기로 진단돼 항암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2기가 예상돼 개복 수술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는 1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위암과 관련한 내시경 시술이나 복강경 수술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시술 전 : 동그라미 부분이 암세포 해당이다.
시술 직후 : 암조직 부위를 제거한 모습.
시술 다음 날 : 회복중인 모습으로, 암조직 주변부에 출혈 가능성이 높은 혈관에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클립을 장착한 상태.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의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입술)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절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70만원 → 550만원	880만원 → 660만원	220만원 → 132만원	220만원 → 132만원	198만원 → 121만원	110만원 → 88만원	275만원 → 165만원	330만원 → 264만원

부가세(VAT) 포함가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미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내셔널추세트래킹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미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인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산인감리교회	401-739-8439
사단기교회	978-534-3394
시온교회	617-620-3352
열방교회	978-274-2369
에이여 베델교회	413-549-6495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9200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위마뉴엘 연합교회	978-514-3399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정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660
뉴비즈 헤어살롱	978-239-0141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부동산	508-734-044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플러스(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7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호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븐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셈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송민근	617-696-7600
해버드랜드(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상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욱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란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세탁소에서 프레스, 헬퍼, 딜리버리 하실 분 구합니다. (남녀노소)
T. 617-840-1833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c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bc118@gmail.com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무한도전' 릴레이툰 연재 순서 공개 상상 초월 그림 퀴즈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 멤버들과 스타 웹툰 작가들이 팀을 이뤄 6주 간 릴레이로 웹툰을 연재하는 '릴레이툰' 특집이 계속된다.

오는 11일 오후 6시20분 방송되는 MBC '무한도전'의 '릴레이툰' 특집에서는 각각 파트너가 정해진 6팀의 연재 순서가 공개된다.

대한민국 대표 웹툰 작가들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지난 주 방송 말미에서는 유재석과 무적핑크, 박명수와 주호민, 정준하와 가스파드, 하하와 기안84, 광희와 윤태호, 양세형과이달년이 파트너로 매칭되며 기대를 모았다. 특히 웹툰계 공식 '과괴왕' 주호민은 무한도전 공식 '악마의 아들' 박명수와 파트너가 되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주 방송되는 '무한도전'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자신의 파트너인 무한도전 멤버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스튜디오를 집중시킨다. 지난 주 '사주 특집'을 연상케 할 정도의 관찰력을 보여줬던 웹툰 작가들의 그림에 멤버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지난 방송에서 '무한도전' 멤버들과 닮은 동물을 찾아내 유재석에게 '블락', 박명수에게 '늪은 투게'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큰 웃음을 준 가스파드 작가가 이번에는 멤버들을 동물 그림으로 그려내 웃음을 선사했다.

기상천외한 그림실력을 공개했던 '무한도전' 멤버들은 '릴레이툰'의 연재 순서를 건스피드 그림 퀴즈에서 한 번 더 상상 초월의 그림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터널' 안과 밖...고립된 하정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끝까지 간다' 김성훈 감독과 자타공인 총무로 대표 배우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터널' 포스터가 베일을 벗었다.

오는 8월 개봉하는 김성훈 감독의 차기작 '터널'은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그린 리얼 재난 드라마다.

이번에 공개된 안과 밖 포스터에는 무너진 터널 안과 밖의 대비되는 모습이 온전히 담겨있다. 평범한 퇴근길, 갑자기 무너진 터널에 갇힌 이정수(하정우 분)의 모습을 포착한 터널 안 포스터에선 그의 막막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터널이 무너져 내리면서 칠흙 같은 어둠 속에 고립된 이정수. 철근 구조물들로 꽉 막혀 자유롭

게 움직일 수조차 없는 비좁은 공간은 그의 험난한 앞날을 예상케 한다. 또한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라는 카피는 무너진 터널에서 벗어나 생존을 원하는 정수의 절실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터널 밖 포스터는 일상 공간인 터널이 무너져 내려 혼란에 빠진 재난 현장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내린 터널 입구는 금세 구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정수의 믿음과는 달리 심각하게 붕괴돼 있다.

더불어 "그날 무너진 것은 터널만이 아니었다"라는 카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며, 올 여름 화제를 몰고 올 새로운 재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aluem_chang@news1.kr



'굿바이 싱글' 김혜수X김현수, 감동의 '여여(女女)케미'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아름답고 지적인 배우 김혜수가 이번에도 영리한 선택을 했다. 까마득한 후배 연기자 김현수와 환상적 호흡을 보여주며 '여여(女女)케미'를 이끈 것. "여성성을 위한 시나리오가 없다"고 토로하는 총무로에 뜨거운 한방을 던졌다.

9일 오후 공개된 '굿바이 싱글'은 독거 싱글 톱스타 주연이 본격적인 '내편 만들기'에 돌입하며 벌어진 대국민 임신 스캔들을 그린 영화다. 김혜수, 마동석, 김현수, 박시양, 서현진 등이 출연한

다. 이 영화가 매력적인 건 언제부턴가 총무로에 유행처럼 번진 브로맨스, 남남케미 열풍을 따르지 않고 색다른 '여여(女女)케미'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굿바이 싱글'은 작품을 통해 꾸준히 여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김혜수의 당당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영화다. 김현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마동석의 사랑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는 29일 개봉.

uu84@news1.kr

'안투라지' 대본리딩 현장, 조진웅·서강준·이동휘 등 라인업 총출동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조진웅, 서강준, 이광수, 박정민, 이동휘 등 출연진이 '안투라지' 대본리딩부터 남다른 케미를 뽐냈다.

7일 tvN 새 드라마 '안투라지' (극본 서재원 권소라/연출 장영우) 측은 지난달 CJ E&M 센터에서 진행된 대본리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대본리딩에는 조진웅, 서강준, 이광수, 박정민, 이동휘, 최명길, 장소연, 안소희, 엠버, 김혜인 등 주요 배우들이 모두 참석했다. 연출을 맡은 장영우 감독과 극을 이끌어갈 서재원, 권소라 작가 외 다수의 스태프도 함께했다.

이날 본격적인 대본리딩에 들어가자 주요 출연진은 실제 촬영을 방불케할 정도로 대본에 몰입했다. 조진웅은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내면서도 코믹한 상황도 노련하게 살려 큰 웃음을 자아냈고, 대본 속 감정이 고조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대사를 소화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 서강준, 이광수, 박정민, 이동휘는 실제 오래된 친구처

럼 대사에 애드리브를 넣어 주고 받아 남다른 '브로맨스 케미'를 뽐냈다. 최명길은 안정적인 연기로 현장을 압도했으며 장소연, 안소희, 에프엑스 엠버, 김혜인도 각자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안투라지' 김영규 책임프로듀서는 "배우들간 '케미'가 무엇보다 중요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앞서 여러 차례 대본리딩을 진행했는데 그 효과가 유감 없이 전체 대본리딩 현장에서 드러난 것 같다. 앞으로 촬영장에서 연기 호흡이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투라지'는 대한민국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배우 영빈(서강준 분)과 그의 친구들 호진(박정민 분), 준(이광수 분), 거북(이동휘 분)이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 은감(조진웅 분)과 겪게 되는 연에게 일상을 담은 드라마로 극의 완성도를 위해 100% 사전제작한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

hjk0706@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5월 30일 ~ 2016년 6월 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6.0%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19.9%
3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9.1%
4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6.8%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5.8%
6	KBS1	KBS9시뉴스	15.8%
7	KBS2	월화드라마(동네변호사조들호)	15.8%
8	MBC	무한도전	14.2%
9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4.1%
10	SBS	정글의법칙파파아뉴기니	12.8%

Tbo Play 주간시청률

1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4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5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7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8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9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0	tN	디어마이프렌즈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02	CHEER UP	TWICE
03	쏘쏘	백아연
04	자격지심 (Feat. 은하 Of 여자친구)	박경 (블락비)
05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06	Good Luck	AOA
07	RE-BYE	악동뮤지션
08	오늘 모해 (#WYD)	iKON
09	1llusion	Dok2
10	D (half moon) (Feat. 개코)	DEAN

숫자 퍼즐 (Sudoku)

	8	1				6		4
	5				4	7		
6			9				2	
			5		6	9		
			8	4	3			
		5	7		2			
	7				5			9
		9	3				6	
2		4				8	3	

6월 12일 - 6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신용을 쌓도록</p> <p>●운수:자신이 처해있는 위치를 잘 판단해서 예의주시 해보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다가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애정: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말을 한 것은 꼭 지켜서 신용을 쌓아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소띠 유리한 방향으로</p> <p>●운수:더디게 풀려가고 있지만 점차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 될 것입니다. ●금전:순리적으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아만 이익도 생기게 되고 금전적인 안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제는 스스로 마음의 짐을 벗어 던져야 할 때입니다. 쉽게 용서할 수가 없더라도 배신감을 품고 살면 자신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범띠 해결점을 찾도록</p> <p>●운수:피로가 쌓이기 쉬운 주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서 그로 인해 소화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되니 상대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애정:서로의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14, 17일 길일, 15, 16일 주의.</p>
<p>토끼띠 판단은 빠르게 하고</p> <p>●운수:작은 일이 큰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주입니다. 판단은 빠르게 하고 맑은 한번 생각한 뒤에 천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가족을 위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미리 계획한 지출만 하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애정:진정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3, 18일 길일, 15, 17일 주의.</p>	<p>용띠 발전이 예상되는</p> <p>●운수:움지가 양지가 되는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금전:발전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애정: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때가 왔으니 구태여 감정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3,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뱀띠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p> <p>●운수:과감하게 도전하면 도리어 피로가 겹치고 손해가 따를 수 있으니 상대와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일 처리를 해 나간다면 큰 손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애정: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인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애정에 대한 결핍을 실감하게 되는군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5일 주의.</p>
<p>말띠 시간이 지나면</p> <p>●운수:뜻하지 않은 구설수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군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금전: 재물이 따라주는 하나 돈 모으기가 힘들군요. 금전문제가 부부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정: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라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고 마음을 잡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8일 길일, 12, 14일 주의.</p>	<p>양띠 지금 회전이 잘 되고</p> <p>●운수: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과연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접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주입니다. ●금전:금전은 은 양호한 편으로 지금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정:가장 바람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 나이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원숭이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p> <p>●운수: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에 정진하기보다는 불투명하고 막연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기 쉬운 주입니다. ●금전: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는 도리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선불리 남의 일에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정:현실이 어려울수록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역시 배우자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닭띠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p> <p>●운수:대인관계에서는 강인함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 수 있고 승산도 있습니다. ●금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금전문제가 호전되고 황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운세입니다. ●애정: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엮어갈 사랑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6일 길일, 13, 14일 주의.</p>	<p>개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p> <p>●운수: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다기도 하고, 말이 씨가 된다고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지출이 많은 주가 될 것입니다. ●애정: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로 현재의 만남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돼지띠 마음의 변화가</p> <p>●운수:모든 면에서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낙담하고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게 되는 주입니다. ●금전:여기저기 금전 지출할 일이 생기니 답답합니다. 머릿속에 금전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정:자신의 마음의 변화도 심하고 상대도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엑소 '66만장 선주문 깜짝 놀라, 동기 부여된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엑소가 트리플 밀리언셀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수호는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 삼성동 SMTOWN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 정규 3집 'EX'ACT'(이그젝트)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어젯밤에 연습을 하다가 66만장 선주문량을 들었다. 놀랐다"고 말했다.

수호는 "계속 꾸준한 사랑을 받는 건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기대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 수록곡이나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66만장이라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100만장을 돌파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가문의 영광인 것 같다"고 덧붙혔다

또 첸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의욕을 잃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는 동기 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엑소dml 음원과 앨범은 하루 뒤인 9일 공개된다.

ppbn@news1.kr

YG 새 걸그룹 합류 리사 4개 국어 가능한 '엄친딸'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새 걸그룹의 두 번째 멤버를 공개했다. YG는 8일 공식 블로그에 "뉴 걸그룹 멤버: 리사(NEW GIRL GROUP MEMBER #2: LISA)"라는 글과 함께 7장의 티저 이미지를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리사는 앞서 지난 1일 공개된 첫 번째 멤버 제니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걸크러쉬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약 5년간의 연습생활을 거친 실력파다. 태국어 외에도 수준급의 한국어, 영어, 일본어 실력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알려졌다. 어릴 적 댄스 크루로 활동하며 춤에 많은 관심을 보인 리사는 지난 2012년 YG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댄스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YG는 새 걸그룹 멤버별 티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리사는 태국 출신 멤버로 YG에서

nahee126@news1.kr

'삼시세끼' 측 "남주혁 합류 확정..유해진 공식 남겨둘 것"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배우 남주혁이 '삼시세끼'의 새 식구가 된다. tvN 관계자는 8일 "남주혁 씨가 차승원, 손호준 씨에 이어 오는 7월 1일 첫 방송하는 삼시세끼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멤버였던 유해진 씨는 출연을 조율했으나, 아쉽게도 스케줄 관계상 이번에는 합류가 어렵게 됐다. 유해진 씨의 자리는 언제든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남겨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주혁 씨는 유해진 씨와는 별

개로 제작진이 눈여겨 보던 젊은 스타로, 손호준 씨의 막내동생 역할을 해 줄 예정이다. 차승원, 손호준, 남주혁 세 사람의 새로운 케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테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HB • GG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초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6월 1째주 시청률 BEST10

1	SBS	내 사위의 여자
2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KBS	아이가 다섯
4	MBC	좋은사람
5	KBS	별난가족
6	MBC	가화만사성
7	MBC	아름다운 당신
8	MBC	그래그런거야
9	MBC	옥중화
10	CJ E&M	디어마이프렌즈

티보플레이 6월 1째주 신규 방송

1	SBS	엄마야
2	CJ E&M	아버지와 나

티보플레이 6월 1째주 최신 영화

1	아빠가 돌아왔다	조동혁, 조원빈
---	----------	----------

'또 오해영' 에릭 "나 혼자 나쁜놈일 때 헤어지자"

(서울=뉴스1스타) 박나에 기자 = 서현진이 에릭에게 사랑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지난 7일 밤 11시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또 오해영'(연출 송현욱/극본 박해영) 12회에서는 오해영(서현진 분)과 박도경(에릭 분)이 재회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오해영은 박도경에게 "나 안 괜찮다.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다가 내가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이에 박도경은 "전화해서 욕하면 백 번이라도 받아줄 테니까 내 욕하면서 살아가"며 오해영을 끌어안았다.

그 말을 들은 오해영은 "그냥 내 마음 바닥날 때까지 같이 가주면 안 되냐"며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도경은 "나 혼자 나쁜놈일 때 끝내는 게 맞다"며 오해영을 밀어내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coramdeo@news1.kr



'신의 목소리' 윤도현 '거리에서', 거친 목소리라 더 애절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윤도현이 발라드를 멋지게 소화했다.

윤도현은 11일 밤 11시15분 방송된 SBS '보컬 전쟁-신의 목소리'에서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불렀다.

앞서 윤도현은 '거리에서'를 불러야 하는 것에 가성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리허설 때도 맞춰보지 않은 하모니카까지 들고 무대에 올랐다.

윤도현은 도입부에서 하모니카

를 불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그는 거친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으로 전반부를 이끌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가성을 섞었으며 후반부에 이르러 고음을 울리며 모두를 집중하게 했다.

윤도현은 뮤지컬 공연으로 인해 목이 쉬었음에도 그냥 듣기에는 목소리가 낯설지도 모를 정도였다. 성시경은 "지친 목소리인데 그래서 발라드가 더 슬프게 들렸다"고 평했다.

ppbn@news1.kr



TBO PLAY

보스톤권각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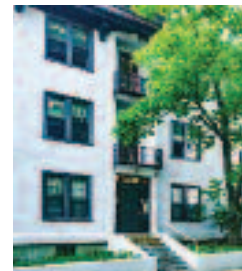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 1. Full Plant 클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급매**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마림 식품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NEW LISTINGS



콘도 세일

47 Gordon St, Unit 1 Allston
2 Bed 1 full bath, 좋은 위치,
2017년 8월까지 리스 있음.

UNDER AGREEMENT



렌트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2 Bed 2 full bath, 하버드 sq.에서 5분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snow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9월1일 입주 가능.

월 \$3,000

NEW LISTINGS



First open house
6/10, 6/11 Sat & Sun 1pm to 2:30pm.

Single Family

6 Sorens Way Bedford
4Bed 2.5Bath 3,580 s.f., 0.6 Acre
Cul-de-sac lot.

Asking **\$1,159,9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내 아들의 여자!!

능력인지, 실력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 막내 녀석만 짝(여자 친구)이 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딱히 남자 친구라 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 엄마가 늘 결혼은 천천히 하면 좋겠다고 누누이 일러두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큰 녀석도 누나랑 함께 시내에 아파트를 얻어 지내고 있으니 남들이 보면 오누이가 아니라 여자 친구와 남자 친구가 함께 룸메이트를 하는 줄 알 것이다. 여하튼 세 아이 중에서 여자 친구를 제일 먼저 만났고 그리고 제일 오래도록 만나는 아이는 막내 녀석이다.

막내 녀석이 대학 1학년 때 여름방학 석달 동안 일하게 된 곳이 썸머 캠프장이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처음 만났던 아이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동갑내기 여자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니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2년이 지났으니 만 6년을 만나고 있는 두 아이다. 처음 1년은 여자 친구를 하나 만났다는 정도로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렸다. 한참 만나고 헤어질 그런 나이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그렇게 한참을 만나더니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혼자 투덜거리며 헤어졌다는 얘기를 한다. 엄마는 그저 시큰둥한 표정으로 웃음 하나 보냈었다.

그리고 몇 년을 잘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니 한 2여년 전부터는 우리 집에도 함께 놀러 오곤 했었다. 글썸,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되려고 그러는지 여자아이의 마음 씀씀이와 행동이 그리 싫지 않다. 아직은 막내 녀석과 친구로 지내니 그러저럭 예쁘면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가끔 놀러 오면 반갑게 맞아준다. 미국 아이지만 동양 여자아이처럼 남자에게 배려해주는 미덕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막내 녀석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함께 탈 때도 앞자리를 늘 엄마인 내게 양보하고 저는 뒤에 앉는 것이 예쁘기만 하다.

더욱 재미 있는 것은 우리 집 개구쟁이 막내 녀석이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해마다 미국에 놀러오시면 손자 손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께서 이 녀석이 한국 음식 레시피를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자 친구와 결혼하면 미국 여자인 제 와이프에게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단다. 그 말이 할머니 듣기에 좋으셨던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흔쾌히 대답을 해주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단을 오르내리시면 넘어지실까 봐 늘 챙기는 녀석이라 더욱 귀엽고 기특하다고 하신다.

이제 9월이면 막내 녀석은 법대에 입학하게 되고 여자 친구는 간호사 공부를 준비한단다. 그래서 요즘 자주 둘이서 집에 놀러 오곤 한다. 사실, 며느리는 아니지만 며느리 같은 아들의 여자 친구가 편하지만은 않다. 구석구석 깔끔하게 치우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내 방식의 이유가 있지만 웬지 요즘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두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차라리 애써 치우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여주자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랬더니 어찌 됐든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오래전에 어릴 적 친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있다. 흑여 며느리가 맘에 들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다. 그 이유는 며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

들을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진정한 이유라 신다. 요즘 세 아이가 커가니 친구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깊은 생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다. 그래, 정말 나도 그러고 싶다. 때로는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내 속을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의 마음을 내가 어찌 감당할까 말이다. 그러니 나도 내 아들 자주 보고 싶으니 그리해야겠다.

막내 녀석 여자 친구를 자주 보게 되니 좋은 것만 보이겠는가. 가끔은 시어머니 같은 알뜰한 마음이 발동하기도 하지만 얼른 시동을 멈추는 연습과 훈련을 한다. 무엇보다도 내 딸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넉넉하게 먹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내 아들의 여자'를 만나니 '내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 어머님을 뵈었을 때 아들의 여자 친구인 내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 내 아들의 여자, 그리고 내 사랑스런 내 며느리!!



한담객설閑談客說: 조자룡의 헌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통과 같고, 유대위처럼 아름답다. 나도 조자룡을 좋아했더랬다. 내 아이도 조자룡팬이었다. 장비나 관우보다 낫지 싶은거다.

'삼국지'를 봐도,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제갈량한테 대패하다" 라고 되어 있다. 어디 조조와 제갈량만 싸웠나? 졸병들이 싸웠지. (마광수, 역사 중에서)

삼국지에는 황충이란 장수의 이름도 등장한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중심인물이라는 하다. 물론 제갈량도 있다. 황충은 나이든 장수였다. 나이 들었다만,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다. 조조와의 일전, 한중 전투에서 이야기이다. 황충과 조자룡이 동반협력으로 조조를 이긴다. 노소의 조화이고 협업이었다. 황충의 나이가 이미 70세 전후라 했으니 대단한 노익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인공은 화려하게 젊은 조자룡이다. 젊음이 주름살 투성이 황충보다 보기에 더 아름답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황충의 충성심과 노련함과 지혜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내 이제 조자룡보다는 황충에게 마음이 더 간다. 내 속마음이다.

조자룡이 헌 칼 쓴다는 말이 있다. 뭘 헤프게 쓴다는 말이란. 헌데 왜 조자룡이 나왔나 모르겠다. 한국에서 재주 많은 가수겸 화가인 조모씨가 대적의혹 구설수에 오른 모양이다. 그의 재능은 의심할 바 없다. 노래며, 목청이며, 게다가 그림에 소질까지 있었다니 다재다능이라 해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귀한 재능을 함부로 여겼던 모양이다. 등록망측得隲望蜀이란 말도 있다. 꽤 어려운 말인데, 욕심이 과했다는 말일게다. 삼국지에서 조조가 말했던 거다. 부하가 유비를 공략하자고 했을 적이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과연 조조답고 위나라를 세울만 하다. 가수 조모씨도 재주를 아끼고,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을터. 그림을 구입했던 사람도 뭐라 할 처지도 아닌 듯싶다. 아무리 그림에 문외한이라 해도, 정精과 성誠이 담기지 않은 그림은 티나지 않던가. 돈에 아양떠는 그림은 화주장처럼 조잡스럽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림을 샀던 사람은 투기로 했을겐가?

한국 대통령에게 제갈량은 없나? 지혜가 철철 넘치는 모사이며, 제대로된 참모 말이다.

다윗은 갈수록 강해졌고 사울 왕실은 갈수록 약해졌다. (사무엘 하 3:1, 공동번역)

여름이다. 하지夏至가 십여일 남았으니 한해가 꺾였다.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맞고 계신지?

몇년전 이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적이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다. 첫사랑이 누구냐? 질문은 유치한데, 대답이 외교적이다. 미남 청년장수 조자룡. 소설 삼국지에 나온다. 유비의 무장이었는데, 용감하고 충직한 젊은 장수로 등장한다. 아마 요새 같았으면, 태양의 후에 유대위였을 거다. 미남청년 송중기 말이다. 하긴, 중국에선 난리가 났던 모양이다. 태후 신

드름이라나 뭐라나. 내 중국인 일터 동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참, 그 친구 속나라 수도 사천이 고향이다. 헌데 태양의 후에 이야기엔 무척 씩씩스러워 하더라. 혹시 그 친구 아내도 유대위를 흠모하는지 모르겠다.

역시 삼국지는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이다. 일간스포츠에 연재됐다. 그런데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에선 홍길동과 일지매와 조자룡의 배우가 같다. 만화에서도 남자배우 기근이었던가.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 말이다. 하긴, 요새 한국 남자 청년들은 모두 쪽쪽뽕뽕이다. 모두 조자

〈추격자〉 〈황해〉 나홍진 감독 신작
무섭도록 강렬한 진짜 스릴러가 나타났다!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개봉 10일만에 450만! 박스오피스 1위!
총무로 언론 관객 만장일치 극찬 세례!

"최근 5년간 최고의 한국 영화!"

- 달시 파켓 평론가 -

스릴러의 거장에 쏟아진 뜨거운 호평
곽도원-황정민-천우희 폭발적 연기 시너지
〈설국열차〉〈괴물〉〈암살〉의 최강 제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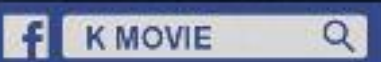
절대 현혹되지 마라

THE WAILING 哭聲

곽도원 / 황정민 / 쿠니무라 준 / 천우희 **6월 3일 대개봉**
TWENTIETH CENTURY FOX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BOSTON AMC Boston Commons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HEWAILING-MOVIE.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5. 네즈 페르세의 도주의 길 (3)

또 하나의 긴 길(도주의 길) (계속)

네즈 페르세는 비터루트 산맥(Bitterroot Range)을 넘어 아이다호를 벗어나 몬태나로 들어가면 미군이 더 이상 추격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군은 이들을 계속 쫓아갔다. 이들은 미군을 속이기 위하여 캐나다를 향하여 북쪽으로 가는 대신 남쪽으로 내려와 엘로스톤국립공원을 관통했다. 미군이 매수한 인디언 정찰병(scout)들의 활약으로 이들의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미군들은 집요하게 추격해 왔다. 엘로스톤을 지나 로키산맥을 넘어 가서 크로우 인디언들을 만났다. 그러나 지금의 크로우족은 미군과 한 통속이 되어서 미군의 앞잡이로서의 정찰병(scout)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하였으며 네즈 페르세를 도와주는 커녕 오히려 네즈페르세의 말을 흘려가기도 하였다.

이제 네즈 페르세에게 남은 선택은 캐나다로 시팅불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셉의 무리들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캐나다로 향했다. 캐나다와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하워드 부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9월 30일 갑자기 마일스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나타났다. 마일스 부대는 네즈 페르세 일행을 중간에서 차단시킬 목적으로 몬태나 주에 있던 키오 요새(Fort Keogh; 종전 이름은 Tongue River Cantonment이었음)로부터 출발하였다. 마일

스의 부대에는 옛 카스터가 지휘하던 7기병대도 포함돼 있었으며 로빈슨 요새(Fort Robinson)에서 차출된 라코타 출신 용병들도 끼여 있었다. 이 용병들은 크레이지 호스가 동족이 동족을 잡으러 다니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여 머리끝까지 화나게 만들었던 그 지원병들이었다. 캐나다로부터 불과 60여 km 떨어진 베어스 포 마운틴(Bear's Paw Mountains)에서 며칠간 미군과 대치하다가 10월 5일 결국 조셉은 투항하였다. 1900 km에 가까운 피눈물 나는 도주의 길은 여기서 끝났다. 그러나 일행 중 몇 사람은 여기서도 또 탈출하여 시팅불이 있는 캐나다로 무사히 들어갔다고 한다.



〈네즈 페르세 인디언의 도주 길, 1877〉

네즈 페르세 인디언과 조셉 추장은 백인들로부터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백인과의 전쟁 중에 머리가죽을 벗긴다든가 하는 불필요한 잔혹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면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쟁과 상관

없는 민간인은 해치지 않았고 포로로 잡힌 여자들은 다 돌려보냈다는 점도 인정을 받았다. 신문에서는 조셉 추장을 붉은 나폴레옹(Red Napoleon)이라고까지 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백인들은 조셉이 전투 추장 역할까지 도맡은 네즈 페르세족의 대추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다. 조셉은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전투 추장은 아니었다. 전투 추장은 따로 있었다. 이들 전투추장들과 조셉을 포함한 다른 추장들로 구성된 부족회의에서 작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서면도 네즈 페르세가 보여준 전술과 전략은 다른 어느 군대보다도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몬태나로부터 캔사스로 이송되는 도중에 노스다코타의 비스마르크 시에 머물렀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환영하였으며 융숭한 음식물을 대접하였다고 한다.

투항 협상 시 마일스 장군은 네즈 페르세 인디언들을 투항 후 아이다호 거주지역으로 보내 준다고 약속했으나 서먼(William Tecumseh Sherman) 총사령관은 이를 번복하고 캔사스의 리번워스 요새(Fort Leavenworth)로 보내 버렸다. 캔사스 수용소의 환경은 네즈 페르세 인디언들에겐 지옥처럼 느껴졌다. 수용되었던 인디언들 중 상당수가 말라리아 등 전염병으로 죽어 갔다. 조셉 추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들은 캔사스에서 오클라호마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1885년 드디어 그 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268명은 고향으로 돌아 갈 수 있는 날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을 비롯한 150명은 아이다호 백인 거주자들이 거세게 항의함에 따라 아이다호 내의 네즈 페르세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워싱턴 주의 콜빌(Colville)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부족과 섞여 살도록 조치되었다. 조셉은 그곳에서 1904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화병(broken heart)'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셉 추장 가족(1880년 촬영)〉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34 화랑세기花郎世紀, 3세 풍월주風月主 모랑毛郎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제3세 풍월주 모랑은 일찍죽은 관계로 그에 대하여 남겨진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역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모랑毛郎은 남모의 아우이다. 이에 앞서 범흥대왕이 국공國公으로 백제에 들어가 보과공주寶果公主와 더불어 사통을 했다. 후에 보과공주가 도망을 하여 입궁하여 남모와 모랑을 낳았다. 모두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미진부未珍夫가 화랑이 되자 모랑을 부제로 삼았다. 태후에게 총애를 받았다. 진흥대왕9년(548년)에 태후가 명하여 3세 풍월주로 삼아 남모南毛의 혼백을 위로했다. 위화랑공이 그의 딸 준화俊花를 처로 삼게 했으니, 곧 이화랑의 누나(女兒)였다. 모랑은 딸인 준모俊毛 한 명을 낳고 일찍 죽었다. 마침내 이화랑이 뒤를 이었다.

찬하여 말한다: 동성왕의 아름다움이며 위화랑의 사위이다. 대왕의 아들이고 태후의 사랑이다.]

범흥왕이 국공國公의 신분으로 백제에 들어가서 보과공주와 사통한 시기는 대략 479년에서 500년으로 본다. 당시 신라는 비처왕(소지왕, 재위기간 471 ~ 500년, 즉위 초에는 현명한 군주로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 나중에 변방 날

이군에 살던 벽화의 미모에 현혹되어 경주에서 영주까지 변복을 하고 다니면서 사랑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왕궁으로 데려왔지만 왕은 여전히 정사政事는 소홀히 하고 정사情事에만 몰두하다가 500년 부군과副君派, 즉 지증왕계에 의해 폐위 살해된 것으로 본다)이 왕좌에 있었고, 범흥의 아버지 지증왕은 부군副君의 지위에 있었다(부군은 차기 왕이고 국공은 차차기 왕을 일컫는다. 지증왕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옥경이 가장 큰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무려 1자5치의 크기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왕후의 키는 자그만치 7자5치다). 백제의 동성왕은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살다가 479년에 전왕 삼근왕이 피살되면서, 당시 세력을 잡고 있던 진씨眞氏들에 의해 즉위하였다. 그리고 501년, 재위 23년 겨울에 사냥을 나갔다가 폭설을 만나 근처에 머무르던 중 위사좌평衛士佐平(현재의 경호실장) 백가가 정변을 일으키면서 왕을 시해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475년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하였을 때 신라가 원병을 보내 지원하면서 신라와 백제는 사이가 좋은 시절이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신라본기 진흥왕 14년, 553년)에 보면 “겨울 10월에 왕이 백제 왕녀에게

장가들어 작은 왕비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있다. 동시에 같은 사서(백제 본기 성왕31년, 553년)에 “겨울10월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백제의 성왕 딸이 신라의 진흥왕에게로 시집을 갔다(소비 부여씨, 성왕의 딸). 당시 진흥왕 시절에는 나제동맹이 깨어지고 서로가 적대관계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다. 국토는 진흥왕 말기의 지경地境으로 확장되지도 않았으며 국경의 성들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계속되는 전쟁의 시기였다. 그래서 왕실을 점령당한 적이 없었기에 ‘화해나 전리품’ 성격의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계미년(503년)의 기록을 계유년(553년)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화랑세기 필사본의 기록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즉 적대관계에 있던 진흥왕 시절 보다 동맹관계에 있었던 소지왕 말엽이나 지증왕 초기에 국공 원종(후에 범흥왕)이 백제로 가서 보과공주와 사통했다는 기록이 당시의 대외적인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후에 보과공주가 신라로 와서 딸 남모와 아들 모랑을 낳았다. 남모는 준정과 함께

최초의 원화였다. 그러다가 준정의 시기와 질투로 준정으로 부터 살해 당했다. 당시 남모는 2세 풍월주인 미진부공의 부인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후손이 없다. 미진부공이 2세 풍월주가 되고나서 남모의 동생인 왕자 모랑을 부제로 삼았다. 모랑은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으며, 1세 위화랑공도 모랑을 좋아하여 자신의 딸 준화를 주어 사위로 삼았다. 그리고 지소태후는 모랑으로 하여금 화랑도를 이끌면서 누이 남모가 못다하고 간 위업을 이루고 그의 혼백을 위로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3세 풍월주가 되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준화와 사이에서 준모라는 딸을 하나 남겨 놓고 일찍 죽었다. 그리고 위화랑의 아들이 화랑이 4세 풍월주가 되었다. 이 이화랑이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고조할아버지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택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怕 (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怕: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the Lord God)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 예레미야 1:8



지난 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소리로 시끄러웠다. 한미 연합사령부의 안내로 국방부 기자단이 방문한 JSA는 한국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 지역이다.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를 동원한 북한군은 선동적 대남 방송을 했지만 확성기 기능 탓으로 방송내용은 알아듣기 힘들었던 것. 취재진을 안내하던 국방부 장교는 “북한군이 올해 초부터 JSA에서도 확성기 방송을 이용한다” 고 말했다. 한국군이 북한의 4차 핵(核)실험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再開)하자 북한군은 JSA지역까지 확성기 방송을 하며 “맞불 작전”을 벌이는 것. 북측 판문각 계단 위에는 북한군 한 명이 부동자세로 남쪽을 노려본다. 남·북한군이 서로 달을 듯 마주보는 JSA는 사소한 사건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곳. 1984년 북쪽에서 JSA를 관광하던 옛 소련 외교관이 별안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바람에 그를 뒤쫓는 북한군과 우리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우리군 1명과 북한군 3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남측 “평화(平和)의 집”은 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북한군의 동향과 주벽지역을 24시간 감시중이다. JSA경비대장인 권영환 중령은 “JSA는 늘 긴장이 흐르고 있다. 북한군이 정전협정 준수여부 감시에 노력을 집중한다” 고. 취임 직후 JSA를 방문했던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연합사령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JSA에 가면 남북한의 차이(差異)와 한반도에 현존하는 위험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고 강

조했다.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중립국(中立國)감독위원회(중감위)캠프도 JSA안에 있다. 현재는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들이 상주하고 있다. 중감위 북측지역에 상주하던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대표는 1990년대 초 북한에 의해 추방당했다. 중감위는 지금도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한다. 지난해 8월 북한군이 DMZ 포격도발을 했을 때도 중감위는 조사 활동을 한 것. 당시 우리군과 미군도 조사했는데 3개 기관의 조사내용이 달라 스위스 대표 우르스 게르브로 육군소장이 “직접 본 것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중립국 감시위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정전협정 감시기구로서 JSA에 계속 남아 임무를 수행할 것” 이라고 답했다. “북한을 향한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던 것은 수구좌의 정권이었다. 햇빛, 달빛 등 한심스런 정책 방송등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좌경화 된 상태? 대한민국이 적화(赤化)통일 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날로 치솟는다” 고.....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물러나게 하고 후임에 김재원(金在原) 전(前)의원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이병기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속을 교체했다. 이로써 총선 참패에 따른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것. 4·13총선 50여일만에. 실패한 총선 직후 여권 내에서는 정무수석부터 바뀌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은 것은 여소야대(與小野大)속에서 야당들과의 관계를 새로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 현 수석이 총선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비난을 목살(?) - 현 수석을 유임시키더니 8일에 갑자기 교체 - . 총선 참패에 대한 문책보다는 박 대통령의 임기말 정국 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재원 신임 수석은 박 대통령 재임 3년 3개월동안 5번째로 임각한 정무수석, 전임 4명의 정무수석은 평균 10개월도 버티지 못한 셈.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수석을 제외하면 모두 친박(親朴)사람 들이다. 새 청와대 비서진은 임기말 국정정리 관리에 전념(專念)할 수 있을까? 怕과 : 두려울 파. 이 怕는 ① 忄 = 마음 '심' ② 白 = 서방(西方)색소 즉 '흰백' 두 글자가 합성 된 것. 사람이 협박을 받아서 놀라거나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생명을 위협받으면 얼굴은 물론 온 피부색이 하얗게 보인다. 약(弱)자가 강(強)한 상대를 마주하면 '하얗게' 얼굴이 변색한다는 것 예레미야(Jeremiah)는 BC627-586년경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52장과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말씀'의 예언자로 명명되었고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또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등의 표현이 약 349회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50%에 해당되는 157회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① 신관(神觀) : 예레미야의 독특한 하나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엄성과 초월성 사상에 철저히하도록 만들었다. 오늘 칼럼 : 怕(파)도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직접대화의 한 토막임을 설명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세계의 창조자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각자가 행한대로 갚아주시심을 믿었다. ② 여호와 보좌인 예루살렘 : 예레미야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의식제도는 참된 실상의 모형에 불과하며, 그러한 제도는 어느날엔가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는 혁명적인 선언을 한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사람이 여호와와 언약(言約)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치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 ” 예레미야 3:16:17 ③ 새로운 언약-예레미야는 모세나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회복을 초월하여 매우 획기적인 언약이 새로 맺어질 것임을 선포한다. 이 '새 언약' 사상이 예레미야 예언의 핵(核)을 이룬다. ‘怕’가 “인자(仁子) 예수님이 태양(日)의 숨결(ノ)이자 말씀(曰)의 시작(ノ)”인 것처럼. ④金在原 : 1964년 경북 의성 出生. 공무원 학력 서울대학교원 행정학과 후 박근혜 정권 제 5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제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새누리당, 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Cave Quest
 FOLLOWING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2016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름성경학교 (VBS)

"Cave Quest - Following Jesus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성경학교(VBS)에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6월 23일(목) ~ 25일(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장소: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대상: Preschool ~ 5학년
 등록비: \$20 (T-shirt 및 점심식사 포함), 조기등록 \$15 (6월 19일까지)
 E-mail: jsyslee@bu.edu

ADAM

QUENNEVILLE

ROOFING ▼ SIDING ▼ WINDOWS

Serving Boston and Surrounding Areas for over 20 years
 over 10,000 satisfied residential & commercial customers

- ▶ Licensed & Insured
- ▶ Insurance Claims Assistance
- ▶ GAF Master Elite Installer
- ▶ EPDM & TPO Flat Roofs
- ▶ A+ Rating BBB

지난 2015년, 눈과 거대한 우박등을 동반한 극심한 폭풍으로 인해
 여러분 지역의 수천가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많은 가구가 흡오너 보험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클레임은 2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무료로 점검(FREE INSPECTION)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617.833.7419



Surrounding Ourselves the Industry's Best!



Specializing in Insurance Claims:

- ▶ Hail Damage
- ▶ Snow & Ice Damage
- ▶ Wind Damage
- ▶ Roof Leaks



OFFICE: 781.944.8161 | CELL: 617.833.7419
WEB: adamqroofing.com | EMAIL: adamqroofing@gmail.com
100 Tradecenter Dr. Woburn, MA 01801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35) 회사주식과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우량주 지수인 다우존스 (Dow Jones)를 사용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2015년 5월 19일 18312.39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에는 최고점을 52번 기록했고, 2014년은 38번, 2015년은 6번 기록을 했지만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기록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30개의 미국회사 주가가격 변화에 따라 지수가 설정되므로 주식시장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S&P 500지수는 500개 회사 주식 변동을 추적합니다. 미국 500대 회사는 주식시장 전체 80%를 나타내므로 주식시장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주식시장이 커다란 변동이 없을 때는 일반 투자자는 회사 종목에 집중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개별적인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주식시장 최고점이었던 시점부터 일 년간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요약하면 맥도날드는 25%, 휴디포는 17%, 비저는 10%, 존슨 존슨은 9.3%,

지이(GE)는 8.3% 각각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기 월마트는 17%, 캐터필러는 19%, 아메리칸 익스플래스는 22%, 골드만 삭스는 22%, 그리고 애플(Apple)은 27% 각각 하락했습니다. 일 년 전 여러분은 어느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했습니까?

2013년 32.43%, 2014년 13.81%, 2015년 1.3%는 미국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을 말합니다. 평균이란 어떤 회사는 평균 숫자보다 높을 수 있고 또한 어떤 회사는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500개 회사 중에서 절반은 평균보다 높고 절반은 평균보다 낮으므로 평균보다 높은 약 250개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에 투자하면 연평균 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던 14,455회사 주식을 에릭 크릭트드 (Defense Wins Championships, Eric Crittenden, 4-29-2016) 주식전문가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1989년부터 2015년까지 S&P 500지수는 1,200%가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지수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던 회사는 20%에 불과하며 평균보다 낮았던 회사는 11,513회사로 8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말은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10개 회사 중 2개 회사를 정확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2004년 이후 S&P 500회사에서 1/4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였거나 개인사업체로 아니면 파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500대 기업에서 25%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했다면 나의 소중한 돈이 종잇조각으로 변합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Facebook)을 현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30년 전에 이런 회사를 알아서 투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창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미리 발견해서 투자해야만 '투자 대박'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평균 수익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26년 동안 S&P 500 연 평균은 11.69%였습니다.

.50만 불 투자가 80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투자 돈이 16배로 증가하며 투자 위험성도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많은 위험과 함께 특정한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야구경기에서 홈런을 쳐야만 게임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안타로 점수를 만들다 보면 경기에서 이깁니다. 2016 슈퍼볼 50에서도 수비가 안정적인 덴버 브랑코 팀이 공격이 우수한 캐롤라이나 팬더스팀을 이겼습니다. '대박'이라는 용어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박을 기대하면 작은 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초와 기반을 잃는 것입니다. 기본을 무시한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 위험성을 먼저 생각하며 제대로 하는 투자가 결국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도박" 처럼 투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몸의 기억: 베트남전의 에이전트 오렌지

1961년 5월, 아시아 순방중이던 린든 존슨 (Lyndon B. Johnson) 부통령이 공산주의자 호치민(Ho Chi Minh)이 이끄는 북베트남과 전쟁중이던 남베트남에 방문했다. 남베트남의 대통령 응고 딘 디엠 (Ngo Dinh Diem)을 만난 존슨은 디엠을 "아시아의 처칠"이라고 추켜세웠고, 디엠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순방에서 돌아온 존슨은 베트남이 호치민에 의해 공산화될 경우 그 여파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인접 국가의 공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을 설교하고 다녔다.

1954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소비에트 연방이 참여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베트남의 분단 종식과 평화를 위해 1956년 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야 했다. 북부 베트남 베트남 민 (Viet Minh)의 지도자 호치민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은 제네바 협약을 무시하고 남베트남의 단독정부 (베트남 공화국) 수립을 지원했다. 이때 베트남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바로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던 디엠이다.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조와 군사적 '조언'이 시작된 것도 이즈음이다.

베트남전은 일차적으로 내전이였지만, 소비에트와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세력 사이의 대리전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기에 냉전 시기의 미국은 베트남

전을 공산주의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종의 성전(聖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 미국이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미국이 1950년대 중반부터 지원했던 디엠 정권의 문제점이었다. 디엠 정권의 부패가 극심했던 데다가, 친족 등용, 불교 탄압, 토지개혁 실패, 친서방 정책 등으로 남베트남 일반 민중들의 지지를 잃었고 1950년대 후반에는 디엠의 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투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1960년, 디엠의 친미정권을 전복시키고 베트남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자들 및 공산주의 동조 세력이 남베트남 내에 민족해방전선 (NLF: National Liberation Front), 일명 베트남(Vietcong)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부 베트남에서는 정규군인 북베트남군과 남부 베트남에서는 게릴라군인 베트남공과 전투를 치러야 했다.

아마 1963년 독재자였던 디엠이 암살당했다. 그러나 NLF의 목적대로 통일정부가 수립되지는 못했다.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이듬해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제한적 역할'은 '적극적 개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65년부터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병력과 자원이 투입된 베트남의 내전은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베트남전으로 확정되었다.

1965년 184,000명, 1966년 385,000명, 1967년 485,000명, 1968년 538,000명으로 미군이 파병한 지상군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오랜 식민지 시절을 겪은 베트남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데에는 (그리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미국이 병력을 증강하는 만큼, 베트남공에서 싸우는 군인의 숫자도 늘었고, 소비에트 연방과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원조도 증가했던 까닭이다.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존재는 베트남 내에서의 반미감정만을 더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 '게릴라'와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 결국은 'Hey Hey LBJ How many kids did you kill today'의 노랫말이 보여주듯, 혹은 미라이마을을 비롯한 양민 학살의 사건들이 보여주듯, 미국은 비도덕적인 전쟁을 치른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살 베트남에 우거진 밀밭 때문에 그 속에서 작전중인 비엠티 정규군과 베트남 게릴라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미군은 게릴라들이 점령한 베트남의 밀밭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 (Operation Ranch Hand)의 일환으로 고엽제 (herbicide)를 사용했다. 미군이 고엽제를 사용했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의 농업 지역을 황폐화시킴으로써

북베트남군과 NFL 게릴라들에 대한 식량 공급 경로를 차단시키고자 함이었다.

미군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약 2000만 갤런의 고엽제를 베트남과 인접 국가에 살포했다. 그 중 60%가 바로 오늘날 GMO 종자시장과 화학적 제초제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몬산토가 생산했던 에이전트 오렌지였다. (에이전트 오렌지의 이름은 고엽제를 담은 갤런 통의 색깔에 따라 붙여졌다) 문제는 고엽제의 성분이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2,4-D라는 성분과 2,4,5-T라는 성분이 반반씩 섞인 제초제인데, 이 중 2,4,5-T를 합성할 때 TCD 다이옥신이 부산물로 나오게 된다. TCD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며,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

1960년대 후반무렵부터 미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 하지만 에이전트 오렌지가, 그리고 다른 고엽제가 살포되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는 수십만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났고, 고엽제 살포에 관여했던 미군들과 한국군들도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를 입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물론 몬산토 등은 에이전트 오렌지가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 물질로 인한 오염과 그 피해를, 사람들의 몸은 기억하고, 또 그다음 세대의 몸이 기억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대한민국 국방부 주최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주관

보스턴 예선대회

2016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보스턴협의회 예선전

수상자

최우수상

(한국왕복 항공권 및 체재 경비)

제목: Home, sweet home

팀명: Free Bird / 팀원: 김호인팀장, 김호경, 이보나, 한기영

형식: Multimedia Dance Performance

우수상

(\$500)

제목: 한겨레통일음악회

팀명: 통일 "한마음 한겨레" / 팀원: 이규진팀장, 조한아, 고요한, 김지혜

형식: 연극 노래

우수상

(\$500)

제목: 미애에게/분단으로 고통받는 슬픈 민족의 아픔

팀명: 하나로 / 팀원: 김유나팀장, 김예나, 김도연, 정원미, Tommy Holladay

형식: 뮤지컬

장려상

(\$300)

제목: "나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팀명: GroupIRean / 팀원: 남영우팀장, 김보경 송용일

형식: Presentation

장려상

(\$300)

제목: 누가? 왜?

팀명: One Korea / 팀원: 최재경팀, 최재민, 최재운

형식: 노래, Performance

장려상

(\$300)

제목: Can you feel the sound of wind?

팀명: The sound of Wind / 김희진, 김경섭 이요한, 이해원 이운찬

형식: Sand animation Performance

팀명: Gabriel's Oboe / 팀원: 이정욱, 김세영, Mark Robertson, Joanna Jiyun Lee

제목: Dream/Here we are now

형식: 노래, Presentation

참가상

(\$200)

참가상

(\$200)

제목: Korean Unification

형식: resentation Discussion

참가상

(\$200)

제목: Normalization of the Abnormality is Peaceful Unification

팀명: Team Jardine / 팀원: 김정훈팀장, Martina Joernstad

형식: Presentation

참가상

(\$200)

제목: 통일외교의 국제화 필요성 및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

팀명: We go Together / 팀원: 조취상팀장, 윤병준 권반석

형식: Presentation

후원 단체

대한민국 국방부, 민주평통, 주 보스턴 총영사관, 보스턴한인회(회장 김경원), NH 한인회(회장 조운경), RI 한인회(회장 조봉섭),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회장 한순용), 시민협회(회장 이경해), 과학기술자협의회 NE 지부(회장 이현희), 보스톤코리아(편집장 장명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6월 둘째주)

● 새 I-20

최근 한 학원의 학생비자와 관련된 법률위반 여부로 이 학교 재학생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 어떤 결정이나 변동사항이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생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계속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서 아셔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 6월 26일 부터 새로운 I-20 (Redesigned Form I-20) 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26일 이전에 I-20 를 받으신 학생들은 굳이 새로운 I-20 로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었으나 오는 7월1일 이후에는 새로운 I-20 만 합법적인 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달 중으로 새로운 I-20 를 학교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새 I-20 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새 I-20 는 이전 I-20 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우선 새 I-20 는 우측상단에 'F-1' 등이 민 신분 종류를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SEVIS ID 번호도 이전것에 비해 확연히 크게 써냈습니다. 또 다른점은 새 I-20 는 3번째 페이지에 모든 instruction 이 프린트 되어 있

지만 이전 I-20 는 2번째 페이지에 instruction 이 있습니다. 또한, 새 I-20 에는 이름란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전의 I-20 는 이름만 기재했지만 새 I-20 는 passport name, preferred name, legacy name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새 I-20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

No. I-20는 반드시 원본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히 원본의 서명도 original 이어야 합니다. 가끔 학교 담당자가 편의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니 혹시 사본으로 받으신 분들은 빨리 학교에 I-20 원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 학교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새 I-20 발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20 에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언제든지 새 I-20 를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재입국시 반드시 새 I-20 를 소지해야 하나요?

No. 이번 여름에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 I-20 를 발급받으셨

을테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I-20 를 발급받고 이미 출국하신 분들도 학교 담당자에게 여행에 대한 서명을 받으셨다면 7월1일 이후에도 기존의 I-20 로 입국하시는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입국하시는대로 새 I-20 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경찰의 서류미비자 구속/구금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최근 주 경찰에게 서류미비자들을 구금/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고 Boston.com 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모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금/구속은 아니고 주법에 따라 구속되고 이민국에서 위험 인물로 지목된 자들에 한한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지난 페트릭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페트릭 행정부는 주 경찰과 연방 국토안전부와의 공조 수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했고 몇가지 예외 상황에서만 이러한 구금/구속을 허가했었습니다.

현행 연방법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서류미비자를 구금/구속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테러관련자, 조직폭력 가담자 또는 중범죄자로 극히 제한하는 상황에서 나온 변화라 더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누가 구금/구속하든 무슨 상관이나는 반문이 있겠지만 이번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주 경찰이 어떤식으로 든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경찰이 범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민법과 관련되서는 언제나 소수인종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수사나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 경험으로도 인종문제에 완벽하게 중립적인 경찰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연방정부로 부터의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정책은 시작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개정 후에도 계속해서 이민과 관련된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세우거나 질문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i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저작권] GAP의 실수, 대기업이라고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막 가져다 쓰면 혼나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패션 디자인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 뿐만이 아니라 행운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인 자체가 기존 디자인의 연속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을 발표하더라도 곧 모방품이 나오기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On Davis 라는 구글서치에도 나오지 않던 썬글라스 디자이너가 2001년 Gap과의 케이스로 주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On Davis는 "Onoculli Designs" 이라고 하는 썬글라스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썬글라스는 금, 은, 혹은 동으로 만들어진 안경테에 렌즈대신 금속 디스크나 금속판을 넣어 상대방은 쓴 사람의 눈을 볼 수 없게 하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On Davis는 1995년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On Davis는 소송이 있기 약 4년 전, 즉 1997년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저작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 1996년 Gap은 광고 시리즈를 찍으면서 On Davis가 디자인한 썬글라스를 모델에게 씌워서 등장시켰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Gap의 광고 시리즈를 은연중 보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Gap웃을 즐겨 입는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 광고 시리즈는 꽤 관심을 끌었고 이 광고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델이 On Davis의 썬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고를 발견한 On Davis는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1심에서 법원은 Gap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든 많은 이유 중에는 저작권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은 On Davis의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On Davis가 저작권을 신청하긴 했지만 1995년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을 때 등록하지도 않았고 1996년 Gap이 사용하고 나서야 1997년에 저작권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On Davis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2001년 항소심에서 법원은 On Davi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Gap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On Davis의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였고 On Davis의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에서 On Davis의 안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압도적이었던 점, 그리고 Gap 광고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On Davis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아 On Davis가 제대로 저작권비를 받지 못한 점도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Gap이 광고에 사용하기 전 On Davis가 충분히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인쇄물, 사진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On Davis의 승소로 케이스가 마무리되었지만, 저작권 변호사로서 이 케이스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저작권 신청을 제때,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On Davis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썬글라스를 팔기 시작하면서 바로 저작권 신청을 했더라면 항소까지 가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본사 소속 변호사

기업 고객

-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1

Song law firm LLC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FORT LEE New Jersey	WASHINGTON DC	FLUSHING New York	EDISON New Jersey	SAN DIEGO California	SEOUL Korea	HANGZHOU China
-----------------------	------------------------	------------------	----------------------	----------------------	-------------------------	----------------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책을 시험문제를 시작하는 세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풀타임 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 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변화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 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